

# 울곡

울곡연구원 소식지  
2019 가을 | 제74호

**살며 생각하며**

백두산과 서해 바다

**전통과 현대**

조선조 학파의 지역성과 강령

**우리문화 톺아보기**

원님재판(?), 정조의 심리審理와 정의론

**오죽헌 사람들 이야기**

이매창, '작은 신사임당'으로 불리다







표지\_ 오죽헌 내부  
(설명 : 뒷표지)

---

발행일	2019. 9. 30
발행처	울곡연구원
발행인	박원재
편집집	학술연구부 (신 윤)
주소	25465 강원도 강릉시 죽헌길 124
대표전화	033) 642-4982 / FAX : 033) 647-4046
홈페이지	<a href="http://www.yulgok.or.kr">http://www.yulgok.or.kr</a>
이메일	yulgokee@hanmail.net
디자인·인쇄	전진인쇄사 033)643-3550, 7





## 04 여는 시

강릉 수채화

## 06 살며 생각하며

백두산과 서해 바다

## 08 전통과 현대

조선시대 학파의 지역성과 강릉

사라진 시공간으로 찾아 떠나는 시간여행

## 16 연구원 사업 리뷰

2019 하반기 고급인문교양강좌 개강

- 율곡의 생각을 따라 떠나는 조선중기 역사기행

전통인문정신연수 프로그램 운영 시작

- '전통'에서 오늘을 열어가는 지혜를 배운다

## 22 율곡의 시간

율곡집을 읽다 - 극기복례, 자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간다?

키워드로 읽는 율곡의 생각 - 두 번째: 경장更張

이야기로 만나는 율곡(2) - 율곡 이이와 구봉 송익필\_1

율곡은 어디 사람인가

## 34 오죽헌 사람들 이야기

이매창, '작은 신사임당'으로 불린다

## 36 사무사思無邪

숙조령[宿鳥嶺]

## 38 동양문화 산책

제자백가 이야기(2) - 공자, '사람다움'의 조건을 생각하다

우리문화 톺아보기 - 원님재판(?), 정조의 심리審理와 정의론

'우리 집', 한옥(2) - 인간중심의 열려있는 한옥

## 50 평생교육원 소식

외국인 초청 한국 유교문화 체험

## 52 밤나무골 통신

## 55 알립니다



# 강릉 수채화

투명한 달빛 묻어있는 산사山寺의 고요도  
하롱하롱 이우는 꽃잎 눈물겨워 모를 일이다.  
최후에 빛날 하슬라何瑟羅, 그 영광의 땅  
품격 담백한 강릉인의 자존감은 훨훨 꿈의 날개다.

채선彩船의 풍광에 흔들리는 흥장의 긴 머릿결  
꿈결인 듯 어화漁火는 금화처럼 반짝이고  
어린 사임당 뛰놀던 북평촌의 낮은 산자락도  
수련꽃송이 꺾어 던지던 초희의 수줍음도  
꿈결인 듯 초당취연草堂炊煙의 그 솔솔 위로  
유년의 지연紙鳶처럼 바람꽃에 새[鳥]가 된다.

둥둥 불끈 치솟는 동해의 일출 장엄한데  
자유로운 바람의 영혼은 풀꽃의 목숨 살려내고  
정동진 바다부채길 그 헌화가獻花歌의 꽃비  
남대천 물그림자에 노추산의 적막 아득한데  
아흐, 사공의 노랫가락 물안개에 젖어 전율이다.

엄창섭 \_김동명학회 회장/현대문학 강릉출신,『華虹詩壇』(1965) 발행인, 한국시문학회장 역임,  
시집에 『비탈』(1968) 외 다수, 현재 (사)K-정나눔 이사장, 월간 『모던포엠』 주간.







## 백두산과 서해 바다

—  
노관범 서울대학교/ 한국사

고려를 세운 창업주는 왕건이다. 그의 집안 내력은 크게 북방 세력과 해상 세력의 두 갈래로 나뉜다. 고려 중기 김관의가 지은 『편년통록』에 실린 설화에 따르면 왕건의 조상 호경은 스스로 성골장군이라 불렀는데 백두산에서 내려와 부소산 인근에서 살았다. 어느 날 평나산에 사냥하러 갔다가 호랑이를 만났는데 그 호랑이는 평나산의 과부 산신이었다. 그 호랑이 산신은 호경과 부부가 되어 신정을 다스리고 싶다고 말하고는 호경과 함께 사라졌고, 마을 사람들이 사당을 세워 호경을 대왕으로 모셨다. 호경의 아들 강충은 풍수설에 따라 송악군으로 거처를 옮겨 고을 사람을 지배했다. 이것이 북방 세력이다.

또 설화에 따르면 왕건의 또 다른 조상은 당나라 황제 숙종 대왕인데 그는 황제가 되기 전에 바다를 건너 송악에 와서 강충의 아들 보육이 사는 곳에 머물러 보육의 딸 진의와 관계를 맺고 돌아갔다. 진의에게서 태어난 작제건은 아버지가 남긴 활과 화살을 갖고 아버지를 찾으러 서해 바다를 건너다가 바다에 버려졌다. 서해용왕을 만나 목숨을 건진 그는 용왕을 괴롭히는 늑은

여우를 활로 쏘아 죽인 후 서해용왕의 딸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러자 개성, 강화 일대의 여러 고을 사람이 궁궐을 짓고 작제건과 용왕의 딸을 맞이했다. 이것이 해상 세력이다.

고려 건국설화의 중심은 이처럼 백두산에서 기원하는 북방 세력과 서해에서 들어온 해상 세력이었다. 백두산과 서해 바다는 어느 의미에서 조선과 다른 고려 문명의 본질을 알려주는 키워드였다. 먼저 백두산은 왕건의 북방 세력 조상 호경이 처음 살았던 곳, 곧 고려 왕실의 근원적 발상지가 되는 곳이다.

고려 이전 우리나라 건국설화에서 백두산이 직접적으로 등장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고려 호경 설화와 연관된 백두산의 설정은 특별한 사건이었다. 사실 백두산은 고려시대 지리 인식에서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산이었다. 고려 중기의 문인 이인로는 지리산이 금나라 백두산에서 일어나 산세가 이어졌다고 생각했고, 고려 말기 사람 우필홍은 고려가 백두산에서 시작해 지리산에서 끝난다고 말했다. 백두산에서 시작해 금강산, 태백산, 소백산 등으로 산세를 그린 <고려도>라는 지도도 있었다.

사실 백두산은 고려시대에는 고려 땅의 밖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인로가 백두산을 금나라 백두산이라고 칭한 것은 틀린 말이 아니었다. 하지만 고려 왕실의 신성한 발상지가 백두산이라고 인식하고 고려 수도 개성의 산세나 한반도 최남단 지리산의 산세가 모두 백두산에서 시작한다고 인식할 정도로 국경 바깥의 백두산에 대한 특별한 관념이 있었다. 고려 시대에는 산악 숭배 신앙이 널리 퍼져 있었고 중요한 산마다 제사를 지냈는데 백두산에 대한 관념도 여기에서 나왔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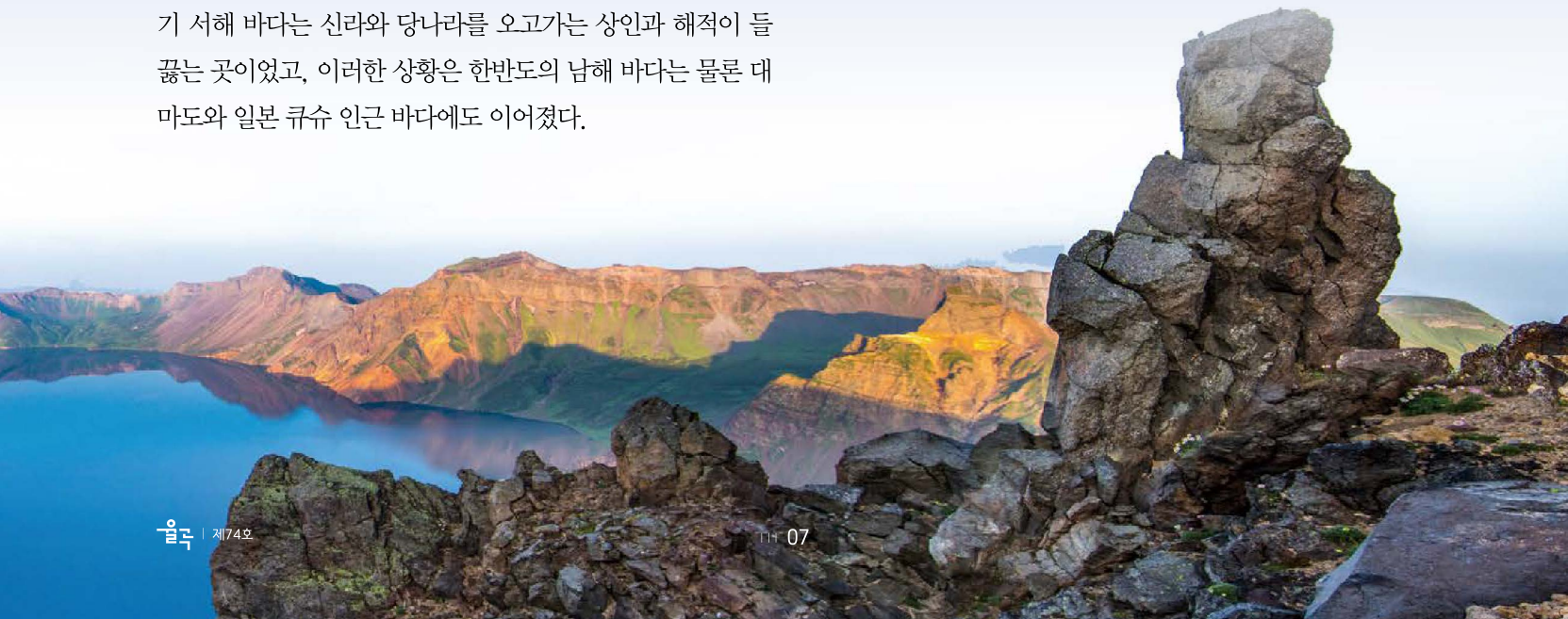
이다. 고려 중기 서경에 세워진 팔성당에서 모시는 여덟 신의 하나가 ‘호국 백두악 태백선인 신태문수사리보살’인 점은 오늘날의 평양에서 백두산에 대한 제사를 지냈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한다. 역시 백두산을 왕실의 발상지로 생각하는 금나라는 아예 백두산에 사당을 세워 봄가을로 백두산에 제사를 지냈고 태백산 산신에게 ‘개천홍성제’라는 벼슬을 주기까지 했다.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는 백두산을 장백산이라 불렀는데 장백산을 숭배하는 생각은 후일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백두산이 한반도 산세의 출발점으로 고려 왕실의 신성한 권위를 높이는 상징적 장소였다면 서해 바다는 신라 말기 해상 세력의 활동 무대로 고려 왕실의 성장 배경을 이해하는 출발점이다. 왕건의 조부 작제건이 자신의 아버지 당나라 숙종을 만나러 간다면서 서해 바다로 떠난다거나, 서해 바다에서 용왕의 적 여우를 무찌르고 용왕의 딸과 함께 수많은 보물을 갖고 고향에 돌아와 환대받는 모습은 신라 말기 서해 바다를 지배한 해상 세력의 활약을 극적으로 상징하는 장면이었다. 사실 당시 서해 바다는 당나라와 신라 모두 국력이 쇠퇴했던 터라 두 나라의 공권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 독자적인 해상 세력이 맹위를 떨치고 있었다. 작제건처럼 이들은 얼마든지 당나라를 향해 서해 바다로 출항할 수 있었을 것이고, 서해 바다로 나갔다가 무역을 하든 약탈을 하든 해서 얼마든지 사람과 보물을 자기 근거지로 가지고 올 수 있었을 것이다. 신라 말기 서해 바다는 신라와 당나라를 오고가는 상인과 해적이 들끓는 곳이었고, 이러한 상황은 한반도의 남해 바다는 물론 대마도와 일본 큐슈 인근 바다에도 이어졌다.

신라 말기 장보고가 당나라에서 상인으로 성공하고 귀국한 후 오늘날의 완도에 설치된 청해진을 근거로 신라-당 바닷길과 신라-일본 바닷길을 수중에 넣은 것은 유명한 이야기다.

이후 서해 바다를 사이에 두고 고려와 송나라 사이에 평화로운 교류 관계가 시작되었다. 고려 사신은 서해 바다를 건너 송나라에 갔고 송나라 사신도 서해 바다를 건너 고려에 왔다. 고려 사신 김부식이 송나라에 간 것도 대각국사 의천이 송나라에 간 것도 모두 서해 바다를 통해서였다. 송나라 사신 서궁이 고려에 왔던 코스는 중국 강남의 영파에서 출발해 서해를 건너 한반도의 흑산도 인근으로 직항했다가 다시 북상하여 고군산도를 지나 고려의 무역항 벽란도에 도착, 고려의 수도 개경에 들어가는 방식이었다. 당시 송나라는 강남에서 출발해 한반도 서해안에 이르는 바닷길을 이용해 고려에 왔을 뿐 아니라 일본과 교역할 때에도 이 바닷길을 거쳐 갔다. 14세기 전반에는 중국 강남의 영파에서 출발한 어떤 중국 상선이 도자기를 판매하러 일본에 가던 도중 한반도 서남해에서 침몰했다. 1976년부터 이어져온 신안 앞바다 해저 유물 및 상선 인양 작업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던 이 침몰 사건은 송나라를 지나 원나라 때에도 송나라 때 이용했던 그 바닷길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확인시켜준다.

고려시대의 키워드, 백두산과 서해 바다, 이를 다시 21세기 미래 한국의 키워드로 옮겨올 수 있을까? 





## 조선시대 학파의 지역성과 강령

이근호 국민대학교/ 조선후기사

### 학파의 지역성을 보려는 이유는?

조선시대 성리학 학파는 시기적으로 16세기 중반 이후 형성되었다. 이는 관학官學의 쇠퇴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성리학의 종사宗師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철학과 이론 체계가 갖추어지고, 이를 계승할 후계자 그룹들이 형성되면서 비로소 '학파'로 구축되었다. 조선시대 학파는 종사인 이황李滉이나 이이李珥, 조식曹植 등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다. 이른바 '통統'을 강조하였던 조선조 사림의 속성상 학통學統 또는 도통道統이라고 할 수 있는 학파의 형성은 필연적이었다. 그리고 이어 재전再傳, 삼전三傳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정치 사회적 학문적 입장에 따라 분화되거나 다시 통합되는 등 변화를 거듭하였다.

그 과정에서 성리학 학파의 분포는 지역성을 띠게 된다. 지역성은 역사적 조건과 지역적 분포에 따라 나타나는 특성을 말한다. 근대 이전의 사회는 교통의 한계 등으로 문화의 양상은 지역성을 띠고 발전되었다. 조선 후기 다산 정약용은 이중환李重煥의 「택리지擇里志」에 대해 발문을 작성하면서, '생거지리生居之理'의 첫째 조건으로 수화水火, 즉 물길과 뚝나무길을 들고 있다. 그 이유는 물길과 뚝나무길이 멀면 인력이 지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당대인들의 생활 범위가 지역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 것으로 이해된다.

오늘날 각 지자체나 단체 등에서 지역문화를 개발하고 재연하며, 확산시키고 있다. 가까이에서 우리 문화를 보고 배우며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학을 연구하는 필자 뿐 아니라 지역민들에게 반가운 일이다. 단, 아쉬운 것은 지역성을 무시하고 타 지역에서 행해지는 행사를 재현하거나 모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지역성이 전혀 발현되지 않은 경우이다. 인류가 오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축적한 경험을 문화라고 할 때, 문화의 특성을 추적하는 지표는 사상, 종교, 경제, 사회관계 등 실로 다양한 요소를 상정해볼 수 있다. 이들 요소는 한편으로 개별적인 운동 논리를 가지고 전개되지만 결국에는 통합되면서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여기에 역사적 조건과 지역성이 결합되면서 지역만의 독특한 문화권을 구축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로 이어지게 되었다. 성리학의 학문 내지 정신세계 역시 마찬가지로, 학파의 지역적 특성은 결국 지역민의 정서에 내재되어 나타난다. 학파의 지역성을 추적하는 것은 학문 내지 정신세계의 지역별 특성을 찾는 방법 중 하나이며, 이를 통해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 성리학 학파의 지역별 분포

조선시대 성리학의 대표적인 학파는 퇴계학파, 남명학파, 율곡학파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밖에 화담학파도 그 하나로 꼽을 수 있겠다. 이 중 화담학파의 경우 16세기 중·후반 서울과 경기 지역 학풍의 근간이었다. 그러나 학파 내 상당수의 인원들이 정치적으로 패퇴한 북인北人 계열에 참여하였고, 이들이 인조반정 이후 몰락하거나 또는 정치적 변신을 하는 과정에서 그 흔적을 지우는 등으로 인해 학파의 모습을 그리기가 쉽지는 않다.

퇴계학파의 지역적 범위는 문인록인 「도산급문제현록陶山及門諸賢錄」을 통해서 확인된다. 「도산급문제현록」에 따르면, 그의 문인 집단은 향리인 안동과 예안, 그리고 인근의 영천榮川(오늘날의 영주)과 성주, 선산, 영천永川, 풍기 등지에 분포하여 50%에 육박하는 문인이 경상 좌도의 북부에 집중되었다. 또한 퇴계가 약 14년 정도 중앙에 출사하여 관직 활동을 하는 동안 서울과 경기 지역 출신이 그의 문하에 출입하였다. 그리고 퇴계의 학문적 명성을 듣고 거의 전국에서 유생들이 입문하였다. 그리하여 퇴계 문인들의 출신지를 보면 경상 좌도 이외에 충청도의 충주와 전라도 장흥을 비롯해 경기도의 파주와 고양, 광주廣州 등지와 강원도의 강릉 등 거의 전국에 걸쳐 있다. 퇴계학파의 지역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비록 인원은 적지만 퇴계 문인이 전국에 분포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경상 좌도의 북부 지역에 주로 퍼져 있던 퇴계 문인 그룹은, 퇴계 사후 조목, 김성일, 류성룡, 정구 등을 중심으로 재편되기에 이르렀다. 이 중 조목의 경우 도산서원에 종향되면서 퇴계의 적전嫡傳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문인들 일부가 중앙의 대북 세력과 연계되고 인조반정 이후 실세失勢하면서 독자적인 학파로까지 성장하지 못했다. 대신 김성일과 류성룡, 정구 등을 중심으로 퇴계학파가 유지되고 확산되었다. 안동 금계를 지역 기반으로 한 김성일은 퇴계 사후 안동을 중심으로 문인 그룹을 형성하였다. 김성일의 학문은 이후 장흥효-이현일 등으로 이어지면서 안동을 비롯해 예안과 봉화, 영해 일대 등

지로 확대되며 영남 지역 퇴계학파를 주도하였다.

퇴계 문인 중 사환을 통해 영의정까지 역임한 류성룡은 안동의 풍산 지역 출신이다. 류성룡의 문인은 그가 귀향하여 있을 때나 혹은 벼슬하는 과정에서 틈틈이 인연을 맺고 가르침을 받은 인물들이다. 류성룡의 문인은 안동과 상주를 중심으로 분포하였다. 상주의 경우 그가 상주목사로 활동한 것이 계기였다. 주로 안동과 상주 지역에 문인 그룹을 두었던 서애학맥은 이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안동 지역의 퇴계학파가 주로 김성일 계열로 정리되면서 주로 상주 지역 일대로 계승 유지되었다. 한편 김성일이나 류성룡과는 달리 퇴계와 남명의 양문兩門에 출입하였던 한강 정구의 경우는, 인동 지역 장현광과 함께 이른바 한려학파寒旅學派로 불린다. 한려학파는 안동 지역에도 문인들이 형성되기는 하였지만 주로 성주 지역이나 경주, 또는 진주 지역 등에 주로 분포하고 있어 김성일, 류성룡의 학맥과 별도의 분파를 형성하였다.

퇴계학파와 동시기에 경상 우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학파가 남명학파이다. 남명은 1501년(연산군 7) 외가인 삼가현 토동에서 출생하여, 서울에서 잠시 생활하기도 하였으나, 곧 낙향하여 처가인 김해와 지리산 근처 덕천에서 주로 학문 활동을 하였다. 남명의 주요한 학문적 기반은 김해와 진주를 중심으로 하는 경상 우도가 되었다. 이에 따라 남명학파의 지역적 범위는 진주를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김해·밀양·청도, 북쪽으로는 창녕·현풍·성주, 서쪽으로는 산청·함양·하동 및 남쪽으로는 사천·고성 등지에 미쳐, 주로 경상 우도에 치우쳤다. 퇴계학파가 주로 안동을 중심으로 경상좌도 일대에 치우친 것과 대비된다.

호남 지역의 경우 조선 초기 정치적 변동 속에 절의를 고집했거나 정쟁에 연루됨으로써 반을 정치적 박해를 피해 전라도로 이주해 온 인물 중심으로 사림 사회가 형성되었다. 대표적인 가문으로는 광주의 충주 박씨, 담양의 문화 유씨, 장



흥의 진주 정씨, 고흥의 여산 송씨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은 연산군대부터 활동이 눈에 띄며 송흠과 최부 등이 당대 호남 사람을 대표했다. 명종대에 이르러 화담학파와 퇴계학파, 남명학파가 형성되면서 호남 학맥의 구도 역시 변화했다. 이 시기 호남 학맥은 크게 화담 서경덕 계열과 송순 계열로 나뉘며, 여기에 이황이나 조식의 영향을 받은 인물들이 일부 존재했다.

1575년(선조 8) 동·서 분당이 되면서 서경덕 계열은 동인으로, 송순 계열은 대부분 서인이 되었다. 호남 학맥 내부의 학문적 분기는 점차 정치적인 대립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철 鄭澈이 서인의 중심인물로 활동하면서 대립은 가속화되었다. 정철은 나주를 중심으로 서경덕 계열을 계승하면서 성장한 정개정·이발 세력과 대립했으며 결국 양자의 대립은 기축옥사 己丑獄事로 정철이 승리하면서 이후 호남지역은 정철 계열이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인조반정 이후 학문적 주도권이 김장생→송시열 등 호서 지역으로 이어짐으로 인해 호남 지역의 학문적 기반은 점차 약화되었다. 따라서 호남 지역은 영남 지역과는 달리 독자적인 성리학 학파나 학맥을 형성하지 못한 상태로 지속되었다.

호서 지역의 경우는 주로 율곡 이이와 우계 성혼의 학맥이

주도하였다. 율곡학파의 경우 율곡의 학문이 김장생에게 계승되었고, 이후 아들 김집을 비롯해 송시열·송준길 등에 의해서 전승되면서 학문적 발전을 이루며 호서 지역 성리학을 주도하였다. 특히 송시열의 활동은 율곡학파가 호서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송시열 문인들의 범위는 그의 학문적 정치적 영향력의 범위를 밝히는 단서이기도 하다. 호서 지역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호남, 영남, 서울을 포함한 경기 지역 순으로 나타나며, 이들 지역 이외에도 강원과 황해, 평안, 함경 등지에서도 문인들이 배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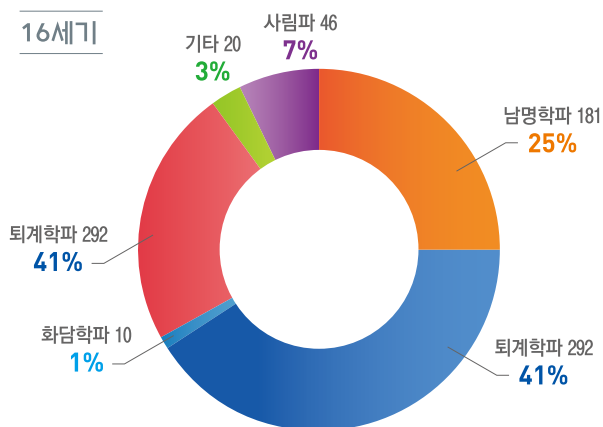
율곡학파의 주도 속에서 호서 지역 우계 성혼의 학맥은 니산의 파평 윤씨를 중심으로 이어졌다. 윤선거-윤증으로 이어지는 니산의 파평 윤씨는, 송시열 학맥이 주도하는 호서 지역에서 외롭게 그 학맥을 지속하였다. 그런 가운데 시간이 경과하며 호서 지역에서 학문적, 혹은 정치적으로 윤증을 지지하는 그룹들이 임천이나 석성, 연기 등을 중심으로 넓혀갔다.

### 강릉의 율곡학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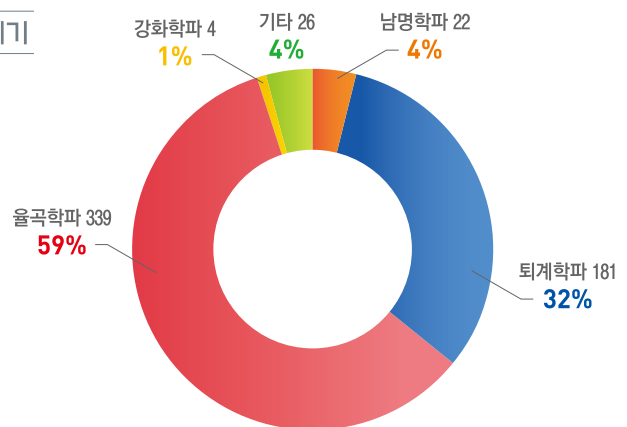
강원도의 경우 지역별로 성리학 학파의 분포가 다소 차이를 보인다. 원주나 동해, 삼척 등지는 퇴계학파, 특히 경기지역

\*조선후기 학파별 인물분포 현황 \_출처 : 김경호, 「율곡학과 기호유학, 그 특성과 현대적 의의」

16세기



17세기





남인 세력이 다수 분포한 반면 강릉은 율곡 이이와의 연고로 율곡학파가 강세를 보인다. 이는 서원과 배향 인물의 분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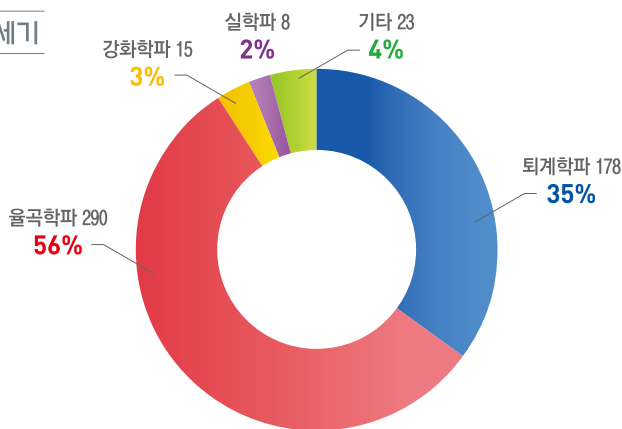
원주 지역의 경우 남인이 우세한데, 원천석과 원호, 정종영, 한백겸 등을 모신 칠봉서원과 허후를 모신 도천서원은 모두 정치적으로 남인이요, 학문적으로 퇴계학파의 기반이 되는 서원이었다. 칠봉서원에 배향된 원천석의 묘비를 허목이 작성하였다는 점과 허후가 미수 허목의 종형제라는 점 등 허목과 관련성이 있는 것을 보면 남인 내에서도 기호 남인 세력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주 지역 내 사람들의 기호 남인과 관련성은 광암사우에 배향된 정시한(丁時翰)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율곡은 강릉에서 태어났으며, 젊은 시절부터 동향 출신 인사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학문 세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런 점이 계기가 되어 강릉 지역에는 율곡학파가 자리 잡게 되었다. 율곡은 젊은 시절에는 동향의 최운우(崔雲遇) 등과 함께 오봉서원(五峯書院) 건립을 주도한 바 있다. 최운우는 퇴계 문인으로 알려져 있다. 1556년(명종 11)에 건립된 오봉서원에는 공자와 주자를 배향하였는데, 1806년(순조 6) 송시열의 배향 논의가 제기되었다. 송시열의 영정을 모시면서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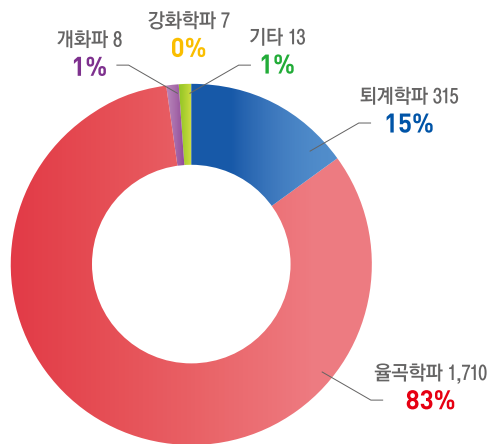
사람 내에서 이론이 전개되어, 일부에서는 새로운 영당(影堂)을 건립하여 모시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함께 배향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미 정원장(京院長) 제도를 두어 운영하면서 정치적으로 서인 세력에 기울었던 강릉 지역 사람들의 여론이 결국 율곡학파로 귀결되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뿐만 아니라 강릉에는 율곡만을 모시는 송담서원(松潭書院)이 1624년(인조 2) 건립되었고, 1660년(현종 1) 사액(賜額)을 받은 바 있다. 송담서원이나 오봉서원의 존재는 결국 강릉 지역 내 사람들의 학문적 성향이 율곡학과 중심이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강원도 지역의 이와 같은 사람세력의 존재는 물론 해당 지역 출신 인물의 동향과도 맥락을 같이하지만, 나아가 지리적 차이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즉 원주나 춘천 지역의 경우 남한강이나 북한강 등이 입지하여 교통이 편리하므로 다양한 정치세력의 이동과 정착이 가능하였을 것이다. 반면 강릉 지역의 경우는 대관령 동쪽이라는 지리적 위치로 인해 특정 학맥의 중심으로 이어지면서 다른 학파의 유입이 제한적이지 않았을 까 판단된다. (이 글은 필자의 『조선시대 성리학 학파의 지역성과 문화권』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많은 선학들의 글을 참고했으나 글의 성격상 일일이 출처를 밝히지 못한 점 양해를 바란다.) 율곡

18세기



19세기





# 사라진 시공간으로 찾아 떠나는 시간여행

유동환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 🕒 첫 번째 시간여행

### 불타 버린 노트르담 대성당의 침탐에 오르다!

2019년 4월 15일! 인류의 대표 문화유산인 노트르담 대성당이 불탔다. 4시간 만에 불은 꺾지만 18세기에 복원한 가장 높은 후면 침탐이 무너지고, 12세기에 세워진 아름다운 지붕의 목조구조도 불타서 무너져 버렸다. 대표 구조물인 2개의 전면 종탑과 스테인드글라스 등은 화마를 면했지만, 프랑스의 자존심에 큰 상처가 남았다. 에마뉼 마크롱 대통령은 “성당은 프랑스 역사의 일부”라며 “반드시 재건하겠다”고 말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트르담 대성당은 프랑스를 넘어 유럽 고딕양식의 대표작으로 1163년 국왕 루이 7세 때에 건축이 시작됐다. 1345년 축성식을 연 노트르담 대성당은 나폴레옹의 대관식 등 프랑스 역사의 중요한 현장이었다. 빅토르 위고가 1831년에 쓴 소설 『노트르담의 꼽추』의 무대로 유명해지면서 ‘파리의 상징’이 되었다.

본래 문화유산은 한 번 훼손되면 어떤 방법으로든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 불가역不可逆의 특징을 갖고 있다. 노트르담 대성당 역시 벌써 4개월이 지났지만 모금 등 예산 확보는 더디고, 지붕에서 녹아내린 납 오염이 심화되어 복원작업은 시작도 못하고 있다. 게다가 올 여름 유례없는 폭염으로 아치구조의 돌들이 부서져 내리고 있는 등 복원은 여러 장애물을 만나고 있다.

이렇게 예산과 안전 문제가 크지만 실제 복원을 위해서 대성당의 옛 자료와 연구자료 등 아날로그 정보뿐만 아니라 삼차원 스캔 데이터 등 디지털 콘텐츠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다. 그



가운데 미국 MIT대학의 스캔 데이터는 파괴 전의 노트르담 대성당 전체에 대한 완벽한 입체정보로 복원에 결정적인 정보가 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2018년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플라이 오버 파리스(Fly over Paris, Fly View사)’ 라는 가상현실 체험관이다. 이 체험관에 들어서면 개인용 비행기구 형태로 만들어진 탑승기구와 HMD를 착용하고, 파리 시내의 주요 명승지를 가상현실을 통해 미리 체험하는 콘텐츠이다. 개선문, 노트르담 사원,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몽마르뜨 광장, 오페라 하우스, 베르사이유 궁전, 세느강에 이르는 며칠 아니 몇 주까지 걸릴지 모를 파리의 주요 관광지를 짧은 시간동안 체험할 수 있다.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콘텐츠 속에 노트르담 대성당이 등장한다. 그것도 대성당의 후면 첨탑 위로 날아 올라가며 체험할 수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다시 찾아볼 수 없는 화재 이전의 노트르담 성당 모습을 가상현실에서 체험하며 시간여행을 하는 것이다.



- 1\_ 노트르담대성당 화재 모습
- 2\_ 노트르담대성당 3D이미지  
© 미국 MIT대학
- 3\_ 플라이오버파리스 체험관  
(<https://www.flyview360.com/>)
- 4\_ 플라이오버파리스 노트르담 대성당 체험 모습  
(<https://www.flyview360.com/>)

이와 같이 3D스캔 데이터(미국 MIT대학)는 노트르담 성당 이전 모습을 복원할 수 있는 무기라면, 미리 촬영된 360도 VR(프랑스 Fly View사)은 불타기 전 성당의 원형을 가상공간(假想空間)에서 거의 완벽하게 체험시켜 주는 셈이다. 게다가 이 체험관 프로그램은 실제 파리를 돌아다니는 ‘City Tour’ 버스와 연계하여 통합 패키지로 43유로에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타버린 노트르담 대성당을 복원 수리하는 과정에 우리는 파리의 상징인 대성당을 관람할 수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플라이 오버 파리스’와 삼차원 스캔 데이터로 만든 가상현실콘텐츠는 언제든지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늘을 날거나, 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건물을 분해해 보는 등 가상현실 속에서 체험할 수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런 상상을 해보자.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강릉을 통치한 강릉대도호부는 현재 객사문만 남아 있다. 도호부 전체를 가상현실로 재현하여 시간여행을 할 수 있다면 어떨까? 머지않아 사라진 공간인 강릉대도호부를 고려나 조선시대의 어떤 시대이든 마음먹은 대로 시간여행을 할 수 있는 꿈을 꾸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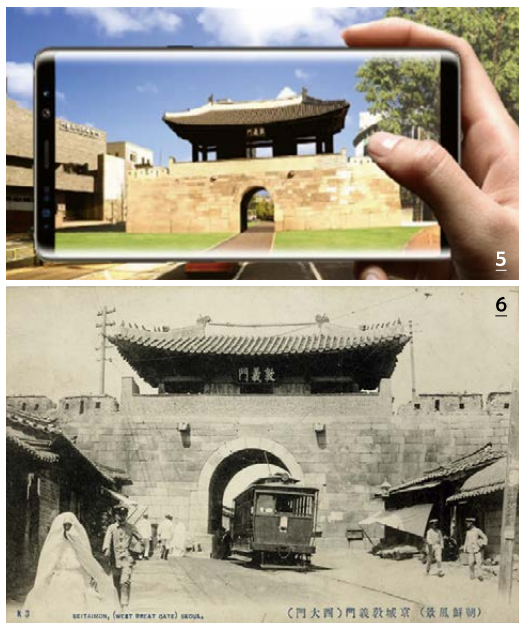
## 8 두 번째 시간여행

### 104년 만에 한양도성 돈의문의 문을 열다!

2019년 8월 20일! 돈의문박물관마을을 둘러 보러 가는 길이었다. 경향신문사에서 건너편으로 건너려고 횡단보도 앞에 섰는데 땡벌 아래에서 젊은 사람들이 도로를 향해 스마트폰으로 무언가 보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로 큰 대문 한 채를 보고 있다.

그들이 가리킨 곳은 조선 건국과 함께 완성된 한양도성의 역사의 띠 중 마지막 퍼즐인 돈의문 敦義門 터였고, 그들이 본 것은 1915년 전차복선 화와 도로 확장을 명분으로 사라진 뒤 104년 만에 부활한 바로 그 돈의문이었다. 서대문西大門으로 더 친숙한 돈의문은 1396년 한양도성을 완공할 때 3대문大門, 4소문小門과 함께 설치된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그 문화유산이 지금은 흔적조차 찾기 힘든 이곳에 스마트폰을 갖다 대니 거대한 서쪽 큰 문으로 나타났다.

강릉에는 현재 객사문만 남아 있다.  
도호부 전체를 가상현실로 재현하여  
시간여행을 할 수 있다면 어떨까?



이 프로그램은 '돈의문 AR' (돈의문 AR체험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정동사거리 주변에서 실행하면 과거 돈의문의 웅장한 모습을 여러 각도에서 만나볼 수 있다. 시간대에 따라 4가지 이상의 그래픽이 구현돼 돈의문의 다양한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

또한 정동사거리 인도변에 설치된 키오스크는 돈의문의 역사와 복원 과정에 대한 간략한 정보와 함께 돈의문 AR체험 앱 설치 안내 정보를 제공한다. 55인치 크기의 키오스크 화면을 통해서 AR로 재현된 돈의문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돈의문박물관마을 건물에 돈의문 체험관도 설치되어 모형(디오라마)과 가상현실(VR)로도 돈의문을 볼뿐만 아니라 한양도성을 성곽을 오르는 실감나는 체험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이 사업은 무엇보다 광복 이후에도 교통영향과 예산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복원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IT기술을 활용해서 현실적인 제약을 극복하고 문화재를 복원 활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단순 디지털 문화유산 재현 콘텐츠의 효용성뿐만 아니라, 원주민을 내쫓고 시대불명의 토목건축 복원 사업도 막을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전통문화로의 시간여행은 융합과 협력에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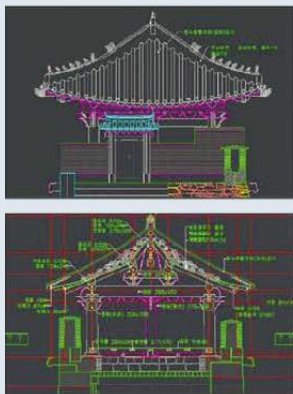
이렇게 전통문화와 디지털이 만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 3단계의 복잡한 작업이 필요하다. 디지털 돈의문 사업을 가지고 살펴보자.



2010 돈의문 복원 기본 계획  
서울특별시 보고서 기반

3D 디지털 모델링

건물 모델링 완성




7

첫째, 고증단계이다. 사라져버린 돈의문을 실제처럼 재현하기 위해서 우선 ‘돈의문 복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2010)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 다양한 역사자료를 수집하고 고건축과 단청 등 전문가 자문회의를 수 없이 거쳤다.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재현 시점時點을 설정하는 것이다. 처음 한양도성의 서대문으로 건설된 1396년으로 할지, 가장 아름답게 개축된 숙종시기로 할 것인지, 도로화장으로 철거된 1915년으로 할 것인지 검토한 뒤 조선후기의 아름다움을 잘 표현하는 18세기 숙종시기 돈의문을 재현하기로 결정하였다.

둘째, 시각화단계이다. 고건축과 단청분야 전문가들이 세운 고증안을 기반으로 14분의 1로 축소 제작(3650×800×1800mm)한 ‘디오라마(Diorama, 실사모형)’ 작품을 제작하여 1차 검증을 한다. 그런 다음에 삼차원(3D) 그래픽 도구를 활용하여 건물의 형태를 만들고 단청 색을 입혀서 ‘디지털 돈의문’이 완성된다.

셋째, 활용 단계이다. ‘아날로그 돈의문’과 ‘디지털 돈의문’은 실제 돈의문이 있던 자리에서 재현해 보거나(AR), 자세한 정보를 입체적으로 서비스 하거나(키오스크), 가상현실 체험(돈의문체험관 모형전시와 VR체험)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것 자체로도 훌륭한 관광과 교육콘텐츠로 활용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 디지털박물관을 세우거나, 가상현실테마파크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 사극과 게임 등 문화콘텐츠상품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전문지식의 융합과 전문가들의 협력을 통해서 좀 더 큰 꿈을 꾸게 된다. 만들어진 돈의문과 한양도성에 경복궁과 종로거리를 재현하고, 의식주 생활의 모든 소품을 넣은 다음, 그 속에 조선시대 인물들을 소환해 보자. 가상현실(VR)기술을 활용하여 서대문을 열고 한양도성 안을 들어가서 강릉에서 올라온 율곡 이이 선생님이 조정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는 그 날이 오게 하자. 

5\_ 증강현실 돈의문 관람 모습  
© 문화재청

6\_ 일제 강점기 엮서 돈의문  
<조선풍경> 속  
©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7\_ 디지털 돈의문 시각화 단계



율곡의 생각을 따라 떠나는  
 조선중기 역사기행

16 |||




“율곡의 생각을 따라 떠나는 조선중기 역사기행”이라는 제목으로 개설된 강좌는 11월 12일까지 9주 동안 매주 화요일 강릉 명주예술마당에서 저녁 7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수강 인원은 처음 80명으로 제한하였으나 수강 신청이 폭주하여 30명을 늘여 110명으로 마감하였다. 하지만 개강 당일 현장으로 나와 등록한 수강자들도 많아 최종적으로 130여명이 등록한 상태이다.

## ‘율곡’을 우리 현실 속으로 불러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

강좌는 모두 9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묶을 수 있는데, 진행상의 순서가 아니라 ‘율곡의 생각과 조선중기’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강좌들 간의 연결 관계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분은 율곡의 생각을 ‘조선중기’라는 시대적인 맥락 속에서 읽기 위한 준비단계이다. 율곡이 활동하던 ‘사람의 시대’가 형성되는 배경(3강)과 또 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선행 시대로서 ‘사화의 시대’ (2강), 그리고 사화를 초래한 직·간접인 계기로써 조선전기 훈구대신과 신진사림의 갈등구도’ (1강)을 역순으로 살핀다.

둘째 부분은 율곡의 생각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는 단계이다. 어렵게 도래한 사람의 시대에 조선유학의 양대 산맥인 퇴계와 율곡의 현실대응 방식이 갈리게 되는 이유(4강)와 그렇게 퇴계와 다른 현실 진단 위에서 펼쳐진 율곡의 개혁정책의 구체적인 내용(5강), 그리고 중국에는 그것이 좌초되는 요인에 대한 분석(6강)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 부분은 율곡의 사후 시대를 다룬다. 먼저, 당장의 현실을 개혁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율곡의 생각은 여전히 시대의 요구를 제대로 읽은 혜안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을 임진왜란을 반면교사로 삼아 재조명하고(7강), 나아가 시대를 내다본 율곡 개혁사상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대동법의 전개과정을 살피고(8강), 끝으로 실사구시적 문제의식으로 충만했던 ‘율곡’이 봉당정치의 와중에 서인들에 의해 이념화되어 간 과정을 추적한다(9강).

박원재 율곡연구원장은 개강 인사에서 이번 강좌의 기획취지에 대해 “‘한국의 대표적인 사상가’ 또는 ‘조선의 대유학자’라는 고정된 이미지를 걷어내고, 율곡의 문제의식과 현실대응책을 철저하게 당시의 시대 속에서 조명함으로써 수강자들에게 율곡의 생각이 지금도 생명력을 지니는 사유라는 점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율곡연구원은 앞으로도 율곡사상과 전통문화와 관련된 주제들을 발굴하여 매년 상·하반기 고급인문강좌를 운영할 예정이다. 



## 일정안내

주차	일자	제목	강사
1	9.17	조선경국과 성리학의시대 - 조선전기 역사의 빛과 그늘	차장섭 (강원대)
2	9.24	사화의 시대 - 현실과 이상의 진검 승부	오향녕 (전주대)
3	10.1	사람의 시대 - '선비[士]', 드디어 숲을 이룬다	송웅섭 (충신대)
4	10.8	퇴계와 율곡의 선택 - 그 시대와 생각의 갈래	박원재 (율곡연구원)
5	10.15	율곡의 개혁정책 - 거문고 줄을 다시 매다	이경동 (고려대)
6	10.22	동서분당과 선조 - 율곡의 개혁은 왜 좌초되었는가	이정철 (경북대)
7	10.29	임진왜란 다시 읽기 - 율곡의 시각에서 읽는 임진왜란	이정철 (경북대)
8	11.5	대동법 이야기 - 조선 최대의 민생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박도식 (강릉원주대)
9	11.12	'율곡', 이념의 뜻대가 되다 - 서인의 '율곡' 만들기 프로젝트	김용현 (한양대)





전통인문정신연수 프로그램 운영 시작

## ‘전통’에서 오늘을 열어가는 지혜를 배운다

울곡연구원의 주요 목적 사업 가운데 하나인 연수사업이 10월부터 본격 시작된다. ‘전통인문정신연수’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연수사업은 그동안 자문회의와 내부 토론 등을 거쳐 마련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프로그램은 ‘역사에 의미를, 전통에 숨결을’이라는 기관의 미션을 반영한 차별화된 콘텐츠에 기반을 두고, 강의와 현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참가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자기주도적 연수를 지향한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울곡을 비롯하여 신사임당, 허난설헌, 허균 등 지역의 역사인물들의 삶과 생각을 씨줄로 하고 오죽헌과 선교장 등 지역의 역사문화 현장을 날줄로 하여 ‘전통’의 의미를 ‘오늘’의 시각에서 되새기는 인문정신 학습 및 체험이 중심을 이룬다.

운영방식은 연수참가 신청이 접수되면 영역별 프로그램(하단 참조)을 토대로 연수 참가자들의 특성과 연수목적 등을 중

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에 부합하는 내용과 일정을 구성한 후 진행된다. 대상은 공직자를 비롯하여 교원과 사회단체, 기업체 임직원, 청소년 및 대학생 모든 계층에 열려있다. 이밖에 연수에 필요한 숙박시설은 강릉관광개발공사가 운영하는 오죽한옥마을과 조선 최대의 반가인 강릉 선교장의 관련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참가자들에게 고품격의 연수 체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연수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사항은 울곡연구원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으며, 연수 문의 및 신청은 교육연수부로 하면 된다.

전 화 033.642.4982  
이 메 일 yulgokee@hanmail.net  
홈페이지 <http://www.yulgok.or.kr>



## 프로그램 소개

### 강의

유형	제목	내용
율곡으로부터 배운다	우리시대에 율곡은 어떤 의미인가	율곡사상의 주요 포인트를 우리시대의 상황 속에 대입시켜 그 문제의식이 지니는 현대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총론 강의이다.
	인간다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한국을 대표하는 사상가인 율곡과 퇴계의 생각을 통해 사람의 도덕성은 어떻게 확보될 수 있으며, 그 실천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성찰한다.
	거문고 줄을 고쳐 매다 - 율곡의 개혁 정책	자신의 시대를 중쇠기中衰期라 규정했던 율곡이 나라를 새롭게 재건하기 위해 추구했던 개혁정책의 내용과 그 추진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개혁'의 성공 조건에 대해 반추해본다.
	'민생民生'을 다시 생각한다	율곡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된 조선시대 최대의 개혁정책인 대동법의 사례를 통해 참다운 '민생'의 의미와 그 실천방법 학습한다.
	이익을 만나면 의로움을 생각하라 - 율곡의 청렴 의식	'견득사의見得思義' 즉 '이익이 되는 것을 보면 그것이 의롭게 얻어진 것인가를 생각하라'고 강조했던 율곡의 청렴정신을 그의 청빈한 삶과 상소에 투영된 국가경영방안 등을 통해 살핀다.
	'시의時宜'와 '무실務實' - 율곡의 공직 의식	국시國是의 방향을 항상 백성의 공적인 감정의 흐름에 맞출 것 '輿情'을 요구하면서 정책의 타이밍과 일의 실질적 성과야말로 관료가 추구해야 하는 제일의 가치라고 설파했던 율곡의 공직 의식을 공부한다.
조선의 여인을 다시 만나다	'나이감'과 '물러남' - 율곡을 통해 보는 선비의 진·퇴 문화	'참여할 것인가, 물러날 것인가?' 삶은 나이감과 물러남 사이의 선택의 연속이다. '출출'/'처處'라는 말로 더 익숙한 선비들의 진·퇴 문화를 율곡의 사례를 소재로 그 의미를 새롭게 음미해본다.
	'현모양처'의 화장을 지우다 - 신사임당	조선후기 서인西人 그룹의 이념화 작업에 의해 덧칠해진 현모양처'라는 남성중심적 이미지를 걷어내고 신사임당의 내면을 직접 들여다보는 과정을 통해 독립된 인격으로서의 조선의 여인을 만난다.
	세 가지 한(恨)을 딛고 핀 예술혼 - 허난설헌	남존여비의 인습에 갇혀 타고난 예술적 재능을 채 피우지도 못하고 저버린 허난설헌의 삶을 통해 예술가로서의 조선의 여인을 만난다.
	조선 최고의 살림집을 일군 여성 CEO - 선교장 안동권씨	충청도로 시집을 갔다가 남편 사후 어린 아들을 이끌고 친정으로 돌아와 염전사업을 통해 부를 일궈 오늘의 선교장이 있게 만든 안동권씨의 삶을 통해 CEO로서의 조선의 여인을 만난다.
	남성중심의 학문 권력에 도전한 여성 군자 - 임윤지당	남성에 의해 권력화되어 있던 조선 성리학에 여성의 몸으로 도전하여 일가를 이룬 여성 군자 임윤지당을 통해 지식인으로서의 조선의 여인을 만난다.
	버선목에 숨긴 독립의 꿈 - 조화벽	저물어 가던 조선에서 태어나 여고생 신분으로 독립선언서를 버선목에 숨겨들여와 고향 양양의 만세운동에 불을 당겼던 유관순 열사의 율곡 조화벽 지사의 삶을 통해 독립운동가로서의 조선의 여인을 만난다.
새로 읽는 전통사상	오륜(五倫)은 구시대의 악습인가	전통 윤리의 대명사인 '오륜五倫'의 형성과정과 의미를 항목별로 살펴보고, 종속윤리 체계인 삼강三綱과 대비되는 평등윤리로서의 오륜의 의미와 가치를 재음미한다.
	'중용'의 길, '중도'의 길 - 유교와 불교의 대화	금강산에서 율곡과 노승이 나누는 유명한 문답을 길잡이로 삼아 동양사상의 양대 축인 유교와 불교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삶의 방식을 비교적으로 조망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긴다.
	'마음', 욕망과 깨달음의 두 얼굴	'마음'을 모든 공부의 출발점이자 궁극적인 귀결처로 삼았던 동양사상의 문제의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천했던 선인들의 마음공부의 지혜를 살핀다.
	동양의 생태환경 지혜	기론氣論을 기반으로 하는 동양의 세계관이 지니고 있는 생태환경적 요소를 살펴보고 관련된 선인들의 지혜를 배운다.





새로 읽는 전통사상	역사에서 배우는 자기주도적 삶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가치를 위해 목숨까지도 던졌던 역사 속 인물들의 사례를 통해 스스로 주인이 되는 주체적인 삶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 생각해본다.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꿈꾸다 - 교산 허균의 삶과 사상	“천하에 두려워 할 만한 것은 오직 백성일 뿐이다”라고 했던 시대의 저항자, 백성이 주인이 되고 적서(嫡庶)의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를 추구했던 「홍길동 전」의 저자 교산 허균의 꿈과 만난다.
지역 역사문화 탐방	강원의 역사와 인물	강원의 역사와 주요 인물을 유학자, 목민관, 독립운동가, 여성 등 유형별 나누어 접근하면서 연수 참가자들의 관심에 맞추어 살펴보는 지역의 역사문화에 대한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한다.
	강원의 유교문화	동안거사 이승휴, 윤곡 원천석, 윤곡 이이, 어촌 심언광, 임윤지당, 의암 유인석 등 강원을 대표하는 유학자와 관련 역사공간을 중심으로 강원 유교문화의 역사와 특징을 살핀다.
	강원의 불교문화	신라말 구산선문 가운데 2개 선문(강릉의 사굴산문, 영월의 사자산문)의 발상지이자 오늘날 조계종의 뿌리인 진전사가 자리하고 있는 유서깊은 강원 불교문화의 역사를 여행한다.
	강원의 풍류문화	관동팔경과 금강산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시대 기행문화의 현장을 중심으로 탐방함으로써 옛 선인들의 풍류문화를 음미한다.
	강원의 민속문화	세계무형문화유산인 단오제를 비롯하여 관노가면극 등 다양한 강원의 민속을 통해 지역 민중의 삶의 내면을 이해한다.

## 현장학습

유형	제목	내용
특별 프로그램	윤곡의 자취를 따라 - 윤곡로드를 걷다	윤곡의 삶을 묘소가 있는 파주에서부터 탄생지인 강릉 오죽헌까지 역으로 답사하면서 관련된 강의를 곁들이는 인문 로드 투어 프로그램 • 파주 윤곡유적지(자운서원, 화석정, 묘소) • 윤곡 서울 연고지(수진방, 대사동, 육조거리) • 강원 봉평 유적지(판관대, 봉산서재) • 강원 정선 이성대 • 강원 강릉 대관령 신사임당 사친(事親) 시비 • 강원 강릉 오죽헌 *2박3일 일정(부분 답사의 경우 일정 조정 가능)
	역사현장 답사 프로그램	
역사현장 답사 프로그램	오죽烏竹을 벗삼은 사람들 이야기 - 오죽헌	윤곡의 탄생지이자 어머니 신사임당이 태어난 곳이기도 한 오죽헌을 찾아 윤곡의 가계와 관련된 오죽헌 사람들(강릉최씨, 용인이씨, 평산신씨, 덕수이씨, 안동권씨)의 삶의 이야기를 듣는다.
	조선 최대 반가의 멋과 정신 - 선교장	조선시대 최대의 반가(班家)인 강릉 선교장의 건축미학적 특징과 해당 문종인 전주이씨 집안 사람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전통을 조명한다.
	초당 솔바람에 묻어나는 문향文香 - 허난설헌 · 허균 생가	허난설헌과 허균 남매의 생가로 알려진 강릉 초당 이광노 가옥을 둘러보며 시대를 잘못 만나 불우했던, 그러면서도 천재적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했던 남매의 삶을 살펴본다.
	조선의 지식인, 선비 양성의 전당 - 강릉향교	현재까지 남아있는 향교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정형성을 갖춘 강릉향교를 답사하며 조선시대 교육제도의 특징과 조선시대 향촌 공동체의 문화를 학습한다.
	목민관의 마음을 읽다 - 강릉대도호부 관아	국보 51호 객사문과 조선시대 지방관청의 공무수행 공간인 칠사당(七事堂)으로 유명한 강릉 대도호부 관아를 찾아 조선시대 목민관의 일상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진정한 민생의 의미를 되짚는다.
	시경과 풍류가 있는 여정 - 경포호반 누정 순례	경포대를 필두로 경호정, 상영정, 금란정, 방해정 등 경포호반에 이웃해있는 누정을 둘러보며 선인들의 풍류와 교유 문화를 맛본다.

힐링&성찰 프로그램	대관령 옛길	반정半程길이라 불렀던 대관령 옛길을 트레킹하며 옛길이 정취를 체험하고 정상 인근에 있는 신사임당의 사친 시비를 통해 사임당의 시세계와 효심을 음미한다.
	바다부채길	강릉 정동진항과 심곡항 사이에 조성된 2.8km 바다부채길을 걸으며 천연기념물 제437호인 해안단구대가 연출하는 풍광을 감상하며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호연지기를 기른다.
	이성대	신라시대 설총과 조선시대 율곡 두 유학자가 공부했던 장소라고 전해지는 정선의 이성대二聖臺를 답사하면서 선인들의 공부법에 대해 알아본다.
	모정탑	2011년에 착고한 고 차옥순 여사가 자식들에게 닥치는 우환을 막을 생각에서 백두대간 노추산 계곡에 26년간 쌓아올린 3000여 개의 돌탑을 돌아보며 '어머니의 마음[母情]'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

## 체험/관광

유형	제목	내용
전시 및 체험	차 한 모금, 생각 한 모금 - 다도 체험	우리나라 3대 차硯 성지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강릉의 다문화를 오롯이 계승·보급하고 있는 율곡연구원 부설 평생교육원의 다도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일상에 대한 성찰과 재충전의 계기를 마련한다.
	커피박물관	커피 도시 강릉의 대표적인 커피박물관을 방문하여 커피와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와 관련 소품들을 관람하고 커피만들기 체험에도 직접 참여한다.
박물관 관광	참소리축음기 · 에디슨과학박물관	소장품 8,000여점, 전시물 4,500여점으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참소리 축음기박물관 · 에디슨과학박물관에서 '소리'와 '과학'의 앙상블을 체험한다.
	동양자수박물관	동양 자수는 물론 궁중 자수와 서양 자수까지 망라되어 있는 동양자수박물관 관람을 통해 우리 자수의 아름다움과 수보繡褔로 유명한 강릉 자수문화의 고유미를 함께 감상한다.





# 극기복례, 자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간다?

— 김태완 숭실대학교/ 철학과

竊謂仁者, 本心之全德, 禮者, 天理之節文, 己者, 一身之私欲也. 人莫不具此本心, 而其所以未仁者, 由有私欲間之也. 欲去私欲, 須是整理身心一遵乎禮, 然後已可克而禮可復矣. 義禮智, 均是天理, 而獨舉禮者, 禮是檢束身心底物事. 視聽言動, 悉循天則, 動容周旋, 皆中節文, 則心德斯全, 而義智在其中矣. 顏子一聞聖訓, 擔當勇詣, 便復天性. 此所以獨稱好學也. - 「克己復禮說」

가만히 생각건대, 인이란 본마음의 온전한 덕이고, 예란 천리를 마디 지어서 꾸민 것이고, 자기란 한 몸의 사사로운 욕망이다.

사람으로서 이 본마음을 갖지 않은 이는 아무도 없는데 인하지 못한 것은 사사로운 욕망이 그 사이에 개입하기 때문이다.

사사로운 욕망을 제거하려면 모름지기 이치를 따라야 한다.

몸과 마음이 한결같이 예를 따른 뒤에야 자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갈 수 있다.

의와 예와 지가 모두 천리인데 예만 거론한 것은 예란 몸과 마음을 검속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는 것이 모두 하늘의 법칙을 따르고 행동과 용모와 처신이 모두 마디지어 꾸민 예에 적중하면 마음의 덕이 이에 온전해지고 의와 지가 그 가운데 있게 된다.

안자는 성인의 가르침을 한번 듣자마자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짚어지고 용감하게 나아가서 곧 천성을 회복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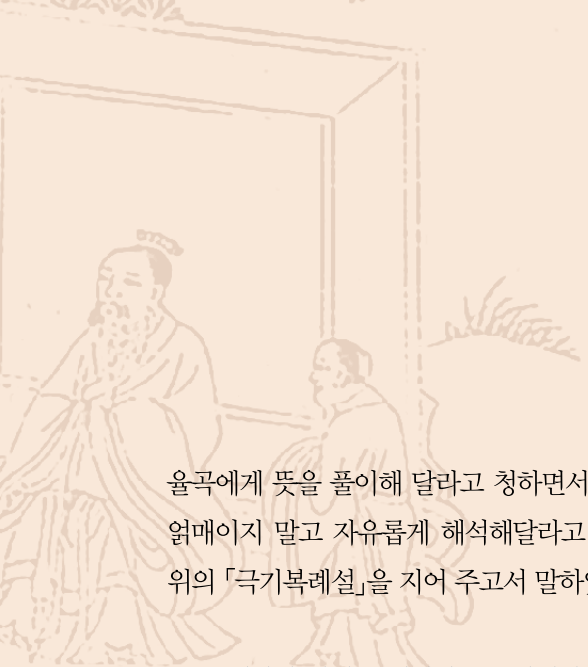
이것이 홀로 배움을 좋아한다고 칭찬을 받은 까닭이다.

1582년(선조, 15) 음력 10월에 중국에서 사신이 왔다가 한 달 가량 외교 업무를 마치고 돌아갔다. 명에 황태자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한 사신이였다. 이때 명에서 온 사신은 황홍헌黃洪憲, 왕경민王敬民이었다. 당시 율곡은 원접사遠接使로 이들 사신 일행을 의주로 가서 맞이하고 이들이 조선에 체류하는 동안 접대하고 돌아갈 때 배웅하는 일을 맡았다.

율곡이 처음 두 사신을 맞이하고 인사를 나누었는데 황홍헌이 율곡을 만나보고 나서 역관 홍순언洪純彦(1530-1598)에게 율곡이 산림의 기상을 지니고 있는데 왕이 홀대하여 초야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사신을 접대하는 일을 맡겼느냐고 물었다. 홍순언이 율곡은 삼장三場 장원을 한 사람으로서 오랫동안 국왕 측근에서 벼슬을 하다가 중년에 병이 들어 여러 해 산림에 물러가 휴양을 했기 때문에 산림의 기상을 지니게 되었을 뿐 지금 국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신하라고 답하였다.

이 말을 듣고 황홍헌이 그렇다면 「천도책天道策」을 지은 사람이냐고 물었다. 홍순언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두 사신은 고개를 끄덕이고 수궁을 하며 그 뒤로 서울로 오는 동안 율곡과 예禮를 논의하고 시를 주고받으면서 아주 정중하게 대하고 서한에는 반드시 율곡 선생이라고 일컬었다.

서울에 들어와서는 문묘를 배알하였는데 황홍헌이 명륜당 벽에 걸린 「사물잡四勿箴」을 보고서



율곡에게 뜻을 풀이해 달라고 청하면서 송 대 선비의 관점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해석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율곡이 위의 「극기복례설」을 지어 주고서 말하였다.

우리나라 사람은 식견이 고루하여서 정자와 주자의 학설을 지킬 뿐 다른 관점으로 부연하여 해석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존의 학설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명高明의 물음을 받고 분발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성리학의 나라이니 반드시 정자와 주자를 이어서 학풍을 일으킨 사람이 있을 터입니다. 고명의 가르침을 받아 문견이 좁은 의혹을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두 사신은 이 말에 다시 변론을 하지 않았다. 이 일화는 『선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황흥헌이 율곡에게 사물 잠의 뜻풀이를 하면서 굳이 송 대 학설에 얽매이지 말라고 한 것은 조선 학술의 조류와 흐름을 엿보려는 의도가 있었다. 당시 중국에는 이미 주자학이 관학으로서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을 뿐 학술로서는 기능을 다하여서 퇴조하고 양명학이 새로이 성행하고 있었는데, 조선은 주자학의 전통이 그대로 강고하게 남아 있었기에 조선 학자들의 학문 수준을 탐색해보고 싶었을 것이다.

율곡의 답변에는 본토에서 소멸해가는 주자학의 전통을 완강하게 지켜가고 있다는 문화적 자부심보다는 완고한 학문의 좁은 울타리에 갇힌 답답함이 묻어나 있다. 조선의 주류 학자로서 주자학의 해석을 견지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학문의 생명은 늘 새로이 진리의 세계를 넓혀가야 하는 데 있다는 본질을 직관하는 학자적 양심을 행간에서 읽을 수 있다.

공자와 안연이 인을 주제로 문답을 하면서 인의 방법으로 제시한 극기복례의 예는 주례周禮로 대표되는 인문문화를 통

칭하는 개념이다. 자연의 생물학적 한 종으로서 인간은 군집 사회를 이루어서 생존하며, 인간이 사회를 이루어 살아갈 때 사회를 이끌어가는 힘이 예인 것이다. 그러므로 고대사회에서 예란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문화를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양식이다. 공자는 인을 인간성취의 최고 경지로 삼았다. 이런 인에 이르는 길을 안연에게는 극기복례로 제시하였다. 하루라도 자기를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면 천하가 그를 인하다고 인정할 것이라고 하였다.

공자와 안연이 말하는 예와 맹자가 인간의 본성을 구성하는 덕목으로 말하는 예는 결이 다르다. 맹자의 예는 네 가지 본성의 덕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인간의 선천적이고 선형적인 착한 도덕적 본성을 말한다. 곧 예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는 의식을 추동한다. 그런데 공자와 안연이 말하는 예는 인문문화가 붕괴되어 가는 현실에서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층이 회복해야 할 인문적 질서와 가치 규범이다.

율곡의 해설은 주자학의 해석을 기반으로 한다. 그리하여 욕망을 극복하고 예를 회복하여서 궁극적으로 천리에 도달하는 것을 학문의 본질로 삼았다. 물론 자아를 성찰하여서 인격 완성을 성취하는 것이 학문의 궁극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은 욕망의 존재로 서로 어울려서 삶을 살아간다. 욕망은 서로 길항하고 갈등하고 모순투쟁을 일으킨다. 현대 사회는 욕망을 긍정하고 욕망을 확대하고 욕망을 계발한다. 이런 현실에서 극기복례의 설교는 김빠진 맥주처럼 밍밍한 맛만 남아 있는 듯하다. 그러나 젊음의 뒀안길을 방황하다 돌아와 거울 앞에 앉아서 자기를 돌아보듯 우리는 잠시라도 스스로를 돌아보면 극기복례의 정신이 주체적 민주시민의 사회에서도 여전히 인문문화를 지탱하는 기둥임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 경장

김경호

전남대학교/ 한국철학

열일곱 스물의 청년 율곡을 대표하는 낱말 가운데 하나가 ‘입지立志’였다면, 서른과 마흔 즈음 장년 율곡을 대표하는 말 중 하나가 ‘경장更張’이다. 경장은 우리시대에 ‘개혁改革’이란 말과 통한다.

전통시대 유학자 가운데 ‘경장’이란 낱말을 가장 많이 사용했던 율곡은 당시의 시세時勢가 “마치 오랫동안 병중에 있어 원기가 다 없어져 걸핏하면 병이 나는 사람과 같다”고 진단한다. “병든 사람과도 같은 시대”임에도 세상은 여전히 인습에 매여서 예전의 습속을 고치지 않고 눈앞의 편안함을 취할 뿐이라는 것이다.(『진시사소』)

변혁의 역량이 봉쇄당하고, 국가적 활력이 소진되어 가고 있었던 1570년대 조선의 현실에서 율곡은 혁신의 동력을 모색한다. 그래서 법제의 개혁뿐만 아니라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선조에게 율곡은 이렇게 말한다: “나라를 세운 지 오래되면 법제의 폐단이 생기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도 해이해지게 됩니다. 반드시 어진 임금의 나와 타락한 것을 말끔히 하고 정치를 고치고 기강을 바로 세운 후에야 국세가 펼쳐 그 명운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 우리 왕조는 나라를 세운 지 거의 2백 년이 되었고 지금은 중쇠中衰의 시기입니다.”(『경연일기』) 자신의 시대가 ‘중쇠기’의 파국적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절감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자는 율곡이다.

율곡이 제기하는 대책이란 ‘경장更張’을 말한다. 사법체제와 정치체제를 포함한 통치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안이자 실천이 ‘경장’이다. 율곡은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시스템의 근간

에 과거의 법규, 곧 ‘구법舊法’이 놓여 있음을 문제 삼는다.

이것은 단순히 낡은 사법司法체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체계를 지지하는 집단과 이데올로기의 문제이기도 하다. 문제의 심각성이 여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율곡은 ‘중쇠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기득권 세력에 의해 장악된 낡은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것, 이것 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일상인들이 사법체계를 존중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법률이 제정’되어 ‘공정하게 법이 집행될 것’이라는 사회적 신뢰에 기초한다. 사법적 정의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명문화된 법률’에만 기초하는 것은 아니다. 명문화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평범한 사람들이 공감하는 ‘법 감성’은 더욱 중요하다. 법률적 해석의 합리성과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법에 대한 사회적 감성이 또 다른 한 축을 이룬다.

율곡의 지적처럼, “법이 오래되면 폐단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한 “폐단이 생기면 고쳐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이치다. 사회가 변했음에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규와 제도로 백성들을 그물질 하는 것은 폭력이다. 맹자는 그것을 ‘망민罔民’이라고 표현한다.

이런 점에서 법규는 변화된 현실의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긴장과 감성을 고려해야 한다. 현실에서 더 이상 의미 없는 법률에 근거하여 법을 집행하고 현실을 재단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백성들의 삶을 피곤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민생이 궁색해지면 성왕의 법이라도 고쳐야 하는 것”이다.(『동호문답』) 법과



제도가 아무리 훌륭한 취지에 따라 만들어지고, 엄정하고 공정하게 집행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식적인 기준과 보편적인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고쳐야 한다.

하지만 법규나 제도를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기존의 법규와 제도에 기대어 지속적인 이익을 유지하거나 특권을 누렸던 집단이 존재하는 한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경장’은 언제나 기득권 세력들의 반발과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어느 시대나 그러하듯이, 개혁의 대상이 당사자가 될 경우, 혹은 자기가 소속된 집단이나 관여하는 특정한 그룹이 될 경우, 반발과 저항은 예상 외로 강렬하다.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조치가 자신들이 구축해왔던 특권적 지위나 이권을 침탈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반발과 저항은 더욱 거세진다. 개혁을 무화시키려는 광범위한 반개혁의 세력이 연대하고, 이들은 자신들이 구축해왔던 ‘아성’을 지켜내는 것, 그것을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시대적 사명으로 위장한다. 그리고 ‘역공’을 취한다.

“지금-여기”, 대다수의 사람들이 구법에 매여 고통 받더라도, 그들에게 이러한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자신의 ‘생존’과 ‘이익’이 타인과의 ‘공존’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율곡은 경장이 특정한 집단의 정치적 실리나 경제적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님을 천명한다. 경장의 기준은 “백성들을 이롭게 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율곡은 “낡은 것을 고쳐서 새것으로 바꾸는 일[革舊更新]은 다만 그 시비와 이해를 따져서 백성들에게



1. 격몽요결, 조선전기 문신·학자 이이가 일반 학도들에게 도학의 입문을 지시하기 위해서 1577년에 간행한 유학서. 유학입문서  
© 오죽헌/시립박물관

2. 율곡 이이 동상  
강릉 오죽헌/시립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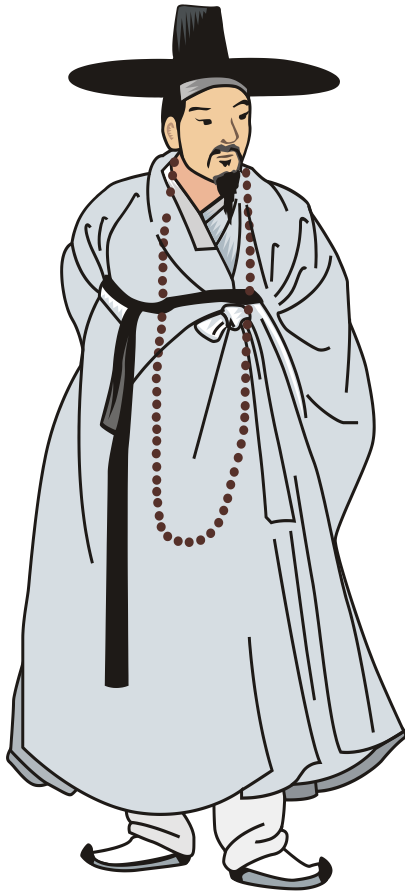
편리함이 있게 하는데[有便於民] 있을 뿐”(「답성호원(병자)」)이라고 갈파한다.

요컨대 구습을 혁신하고 경장하는 것은 관례에 젖어 인순고식(因循姑息)하는 세태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강요된 몽롱의 세계를 격파하고, 변화의 시간에 동참하는, 소통의 시대정신이자 그 실천이다. 이처럼 ‘혁명경장’ 혹은 ‘혁명경신’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시의時宜, 곧 시대의 요구에 절실하게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렇기 때문에 경장은 더더욱 거문고를 제대로 연주하기 위한 해현경장(解絃更張)의 긴장과 이완처럼, ‘예민한 결단의 총체성’을 요청한다.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한다[窮則變, 變則通]”는 『주역』의 진리에 공감했던 율곡의 감성적 사유는, 여전히 우리시대에도 참말일까? “궁즉변”, “변즉통”도 그렇거니와 “통하면 지속된다[通則久]”는 『주역』의 말은 아직,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나도 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야 하는 것도 변혁을 꿈꾸는 자들의 몫이다.







— 최 호  
울곡학회  
부회장 / 한국사



## 울곡 이이와 구봉 송익필 1

숙헌(이이의 자)이 형의 편지를 옷소매에 넣어 가지고 와서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봉함을 뜯고 두 번 세 번 되풀이 읽었습니다.(1560년 10월 성헌이 송익필에게 보낸 편지)

숙헌이 요즘 임진나루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희 집이 다소 넓기에, 네댓 날쯤 문회(文會)를 열어 『대학』과 『논어』를 강론할 생각입니다. 형이 왕림하여 질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1577년 윤8월 성헌이 송익필에게 보낸 편지)

형에게 보내는 숙헌의 편지를 전해 받았습니다. 편지를 미리 뜯어보아도 좋다는 숙헌의 허락이 있었지요. 실례를 무릅쓰고 제가 읽어보았더니, 숙헌의 날카로운 칼날도 형에게 완전히 제압되었군요.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1579년 11월 성헌이 송익필에게 보낸 편지)

위에서 인용한 글은 모두 우계 성헌이 송익필에게 보낸 편지의 한 단락이다. 울곡 이이와 함께 대학자인 우계 성헌이 학술평의회에 초대하기도 하고, 서로 편지를 공유할 정도로 가깝게 지냈던 송익필은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을까?

“

조광조와 신진사람들은 비로소 역사를 바로잡았다고 기뻐했지만,  
이들은 중종의 마음을 읽지 못했다. 위훈삭제는 공신들에 의해  
왕위에 오른 중종의 콤플렉스를 자극한 것이다.

”

송익필宋翼弼(1534~1599)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종 시대부터 선조 시대까지 이어지는 그의 가족사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중종 시대로 돌아가서 그 시대의 상황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1515년(중종 10), 조광조가 혜성처럼 등장하여 원자의 탄생을 축하하는 알성시에 장원으로 급제하며 중종의 눈을 사로잡았다. 당시 조광조는 이조판서 안당의 천거로 종이를 제조하는 부서인 조지서의 사지로 재직 중인 초보 관리였다. 조지서라는 별 볼일 없는(?) 관서에 근무하던 조광조가 두각을 나타낸 것은 초보 관리의 신분으로 치른 알성사에서 합격한 이후였다. 알성시 장원 급제 뒤 조광조는 성균관 전적과 사간원 정언을 거쳐 마침내 홍문관에 입성한다. 홍문관 관리가 된 조광조는 중종의 뜨거운 총애를 받으며 승진을 거듭했고 개혁을 주도하며 젊은 선비들의 우상으로 떠올랐다.

조광조는 특히 영터리로 임명된 반정공신들과 부정부패가 만연한 훈구대신들에 대하여 날선 비판을 하였는데, 그를 추종하는 사간원·사헌부, 홍문관과 성균관의 젊은 유생들도 이에 동조하였다. 이때 비판의 대상이 된 대신들 가운데 단 한 명의 예외가 바로 이조판서 안당이었다. 안당은 드물게도 신진 사람들의 지지와 존경을 받은 대신이었고, 이러한 지지를 바탕으로 마침내 1518년(중종 13) 5월 우의정에 임명되었다.

하지만 영광의 시간은 길지 않았다. 1519년(중종 14) 조광조와 신진 사람들은 강경하게 위훈삭제(僞勳削除)(중종반정 때

공을 세운 공신 중 자격이 없다고 평가된 사람들의 공신 작위를 박탈하고 토지와 노비를 환수해야 한다는 것)를 주장했다. 결국 중종반정으로 공신에 임명된 총 117명 가운데 4등 공신 65명 전원을 포함한 76명이 공신 명단에서 삭제되었다. 조광조와 신진사람들은 비로소 역사를 바로잡았다고 기뻐했지만, 이들은 중종의 마음을 읽지 못했다. 위훈삭제는 공신들에 의해 왕위에 오른 중종의 콤플렉스를 자극한 것이다.

위훈삭제가 이루어진 지 3일 뒤, 중종은 후궁 희빈 홍씨의 아버지이자 반정공신인 홍경주와 남곤에게 밀명을 내려 조광조와 그를 추종하는 관리들을 체포하였다. 결국 조광조에게는 사약이 내려졌고, 그를 추종했던 선비들도 모두 숙청되었다. 이를 기묘사화라고 한다. 조광조가 사사된 뒤 중종의 마음을 알아챈 신하들은 안당에 대한 탄핵의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안당은 고신(告身)(관직 임명장)을 빼앗겼다.

기묘사화 이후 조광조를 비롯한 기묘사람과 친밀했던 안당은 집중적으로 탄핵을 받았다. 그를 비난하는 가장 큰 근거는 그의 세 아들들이 모두 현량과에 급제하였다는 것이다. 현량과는 조광조의 건의에 따라 시행된 관리등용 제도로 학문과 덕행이 뛰어난 인재를 천거 받아 시험을 치르고, 합격한 사람은 임금과 대신들 앞에서 심층 면접을 본 뒤 곧바로 벼슬을 내리는 방식이었다. 현량과가 시행되자 조광조와 친밀한 젊은 선비들이 대거 발탁되었는데, 그 중에는 안당의 세 아들 안처겸, 안처함, 안처근도 있었다.



신사무옥은

조광조를 추종하던 마지막  
세력까지 숙청된 사건이자  
송사륜과 안당 가문과의  
길고긴 악연이 시작된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이것으로 안당을 비난하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었다. 왜냐하면 현량과가 실시된 지 얼마 뒤 안당의 아내가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안처겸, 안처함, 안처근 형제들은 어머니의 초상을 치르기 위해 사직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곧바로 기묘사화가 일어나면서 현량과는 폐지되었고 합격도 취소되었다. 다시 정규 과거시험을 치르지 않는 이상 정계에 진출할 가능성이 사라진 것이다.

1521년(중종 16), 기묘사화가 일어난 지 3년의 시간이 흘렀고 안처겸 형제들의 삼년상도 끝이 났다. 탈상을 하는 날, 안처겸 형제들은 뜻을 같이하는 선비들과 모여 세상을 한탄하며 조광조를 숙청한 조정 대신들을 비난하였다. 안당은 아들들의 이런 생각이나 행동이 위험하다고 여겨 주의를 주었지만 혈기왕성한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아들들을 설득하지 못한 안당은 한양을 떠나 고향으로 내려갔다. 바로 이때 안당의 이종 서조카 송사륜이 안처겸 형제를 역모로 고발한 사건이 발생했다.

안당의 아버지 안돈후는 정실부인 박씨가 세상을 떠나자 재혼을 하는 대신 데리고 있던 집안의 노비 중금을 비첩으로 삼았다. 중금은 안돈후와의 사이에서 딸 감정을 낳았다. 노비의 딸 감정은 천출이긴 하였지만 혈연적으로는 안당과 이복남매였다. 안당은 감정의 노비문서를 없애고 신분을 양인으로 바꿔주었다. 감정은 평민 출신 군인 송인과 혼인하여 송사륜을 낳았다. 비록 신분은 달랐지만 송사륜은 안당에게 이종조카였고 안처겸에게는 이종사촌간이었다. 따라서 송사륜은 안당 집안의 사람들과 가족처럼 지냈다. 그런데 이 송사륜이 안처겸의 역모를 고발한 것이다.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중종은 역모에 민감했고 기묘사화가 끝난 지 3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정 대신들은 긴장했다. 곧바로 친국親鞠(임금이 죄인을 몸소 신문하는 것)이 열렸고 모진 고문 끝에 관련자들이 속출했다. 안처겸, 안처근 등 7명은 사지가 찢기는 능지처참형을 받았고 역모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20여 명이 숙청되었다. 역모 사건이었기 때문에 연좌제가 적용되어 고향에 내려가 있던 안당은 교형絞刑(교수형)을 받았고, 남은 가족들은 변방으로 쫓겨나는 형벌을 받았다. 이 사건을 ‘신사무옥’이라고 한다.

신사무옥은 조광조를 추종하던 마지막 세력까지 숙청된 사건이자 송사륜과 안당 가문과의 길고긴 악연이 시작된 것을 의미했다. 신사무옥으로 안당의 가문은 풍비박산되었고, ‘같은 집안사람’으로서 역모를 고변한 26세의 송사륜은 공신으로 책봉되어 출세의 길이 활짝 열렸다. 종5품 관상감 판관으로 재직 중이던 송사



「삼현수간」 조선시대 송취대가 송익필·성훈·이이의 편지를 모아서 1599년에 간행한 서간집 © 리움박물관 소장

련은 신사무옥이 마무리된 지 열흘 만에 다섯 품계를 뛰어넘어 정3품 중추부 첨지사로 승진하였고, 안당 가문에서 몰수한 재산은 송사련의 차지가 되었다. 신사무옥은 노비의 손자 송사련의 인생을 하루아침에 바꿔놓았다.

신사무옥 당시 안당의 아들들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은 둘째 아들 안처함이었다. 아버지 안당의 성품을 닮은 그는 형 안처겸과 동생 안처근이 시절을 한탄하며 세상을 뒤집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모으자 극구 말렸던 인물이다. 신사무옥 이후 경상도 청도에 유배된 안처함은 항상 행동을 조심한 덕분에 1522년(중종 17) 유배지에서 풀려났다. 안처함은 처가가 있는 경기도 용인에 거처를 마련하고 여생을 조용히 보내다가 1543년(중종 38) 세상을 떠났다.

구봉 송익필은 1534년(중종 29) 바로 송사련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송익필은 어려서부터 비범한 충기를 드러냈지만 이름난 유학자의 제자가 되지 못했다. 안당의 가문을 몰락시킨 송사련의 악명이 선비들 사이에서 워낙 자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송익필은 독학으로 성리학을 공부하며 과거시험에 매달렸다. 송익필은 실력으로 과거에 급제하여 이름을 날리는 것만이 아버지의 오명을 씻고 주류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그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1558년(명종 13) 다섯 살 아래의 동생 송한필과 나란히 소과 초시에 합격한 것이다.

하지만 송익필은 이내 좌절을 맛보게 되었다. 송익필 형제가 과거시험에 합격한 것이 알려지자 사관 이해수, 김홍식 등이 ‘송사련은 예의를 저버린 죄인이며 그 자식들은 역시 일손(노비의 자손)들이니 과거에 나아감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상소를 올린 것이다. 이를 계기로 선비들 사이에서는 송사련에 대한 비난 여론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1559년(명종 14) 결국 송익필의 초시 합격은 취소되었고, 대과 응시 자격도 박탈되었다. 이때 송익필의 나이는 스물여섯, 그의 아버지 송사련이 양반의 신분을 얻었을 때와 같은 나이였다. 음력



# 울곡은 어디 사람인가

이숙인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철학

## 영원한 고향, 강릉

「울곡연보」에 의하면 이이는 강릉에서 태어나 유년기를 보내고 6살 때 어머니를 따라 서울 수진 방으로 옮겨간다. 태어나 5년을 살았던 강릉은 울곡이 늘 그리워하던 몸과 마음의 고향이었고, 그의 이야기는 대개 강릉에 남긴 몇 가지 일화로부터 시작된다. 외조모가 3살 난 울곡에게 석류를 가리키자 “석류 껍질 속에 붉은 구슬이 부서져 있다.[石榴皮裏碎紅珠]”고 했고, 5살 때는 어머니 신부인이 위독하자 몰래 사당에 들어가 쾌차를 비는 기도를 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또 큰 비로 앞 내[川]가 불어난 어느 날 어떤 이가 나를 건너다가 넘어져 위태롭게 되자 구경하던 사람들은 모두 박장대소를 했다. 하지만 어린 울곡은 기둥을 끌어안고 노심초사 불안해하다가 그 사람이 무사하게 되자 낮빛이 밝아졌다고 한다. 선한 본성과 비범한 지성을 예견하는 유년기의 일화는 용꿈으로 잉태한 탄생 설화와 함께 울곡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강릉을 떠난 울곡은 더 긴 소년기와 청년기를 서울에서 보내지만 강릉의 기억만큼 강렬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어머니 신사임당이 세상을 뜬 지 4년, 20살의 울곡은 다시 강릉을 찾는다. 임신수도를 위해 금강산에 들어갔다가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속세로 나오는데, 그 길로 외조모가 계신 강릉으로 간 것

故鄉

江陵

이다. 강릉에서 1년을 머물다 서울로 돌아오는데, 상경 직후 한성시에 장원 합격한 것으로 보아 강릉 외가에서 과거를 준비한 것이다. 바로 다음해, 22살의 울곡은 성주 목사의 딸 노씨와 혼인을 하여 2년 동안 장가살이를 하는데, 그 사이 외조모를 뵈러 강릉을 방문한다. 가는 길에 퇴율退栗의 역사적 만남으로 기억된 도산의 퇴계를 방문한다. 당시의 감회를 「성산에서 임영으로 가며[自星山向臨瀛]」라는 제목의 시로 남겼는데, 성산은 성주의 다른 이름이고 임영은 강릉의 다른 이름이다.

나그네 길에 봄은 절반을 지나고 客路春將半  
역관驛館에는 오늘 해도 지려 하네 郵亭日欲斜  
먼 길 가는 나귀 먹일 곳은 어디뇨 征驢何處秣  
연무煙霧 저편에 인가가 있네 煙外有人家

본격적인 관직 생활을 하게 된 울곡은 한동안 강릉을 향할 여유가 없다가 외조모가 병환에 들자 관직을 버리고 강릉으로 내려오는데, 33살 때 11월의 일이다. 당시 임금은 울곡에게 특혜를 베풀어 부모를 뵈는 예로 외조모를 가 뵈도록 했다. 다시 홍문관교리에 임명되어 서울로 돌아오기까지 7~8개월의 긴 시간을 강릉에서 지낸다. 그가 강릉을 그리워했다는 정황들은 곳곳에서 발견되는데, 강릉을 고향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해당화 핀 강변길 멀기만 한데    海棠江路遠  
말을 몰아 고향으로 돌아가네    策馬返家鄉  
고향 산천은 한없이 정답고    丘水情無極  
친한 벗들 언제나 즐겁기만 하네    親朋樂有常

이 시는 외조모의 병환 소식을 듣자 마음은 벌써 고향 강릉으로 가 있는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뱃고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외조모의 상을 당하는데, 장례를 치르고 반년을 머물다 상경한 후 강릉 땅을 다시 밟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이로부터 10여년 후 실제 거주지인 해수에 토지를 마련하기 위해 외조모로부터 상속받은 땅을 종제 從弟 권처균에게 매도한다.

#### 살기는 처향妻鄉에서

율곡은 서울에서의 관직 생활을 청산하고 처가 있는 해수에 터를 잡는다. 중년에 든 율곡은 병을 이유로 사직을 청하는 일이 잦아졌는데, 해주는 관직 생활로 피폐해진 심신을 위로 받을 수 있는 곳이었다. 서울에서 해주로 이동할 때는 배를 이용했다. 율곡의 시 「배를 타고 서쪽으로 내

려가다[乘舟西下]」에서 해주는 갈등과 상처로 얼룩진 영혼을 쉬게 하는 곳으로 묘사된다.

세상에 맞지 않는 일 하도 많아, 끊임없이 돌아갈 생각뿐이로세  
處世苦不諧, 悠然歸意催.

천심이야 변하지 않는다 해도, 변하는 세태 그 누가 막으랴  
天心縱不移, 變態知誰裁.

넓은 바다엔 가랑비 아득히 내리고, 석양에 외로운 배 띄웠어라  
滄海細雨迷, 斜陽孤棹開.

아름답구나! 넓고 넓은 물 위로 온갖 생각 사라지네  
美哉水洋洋, 萬念嗟已灰.

임 향한 일편단심만은 아홉 번 죽어도 끝내 변치 않으리  
只有一寸丹, 九死終不回.

율곡은 42세 이후의 말년을 해주 석담에서 보냈다. 조선시대에는 혼인 후 처가에 터를 잡고 사는 경우가 많았는데, 율곡의 외증조부 이사온과 외조부 신명화가 강릉에 터를 잡은 것이나 만형 이선이 처가妻家 회덕에 산 것, 그리고 아우 이우李瑀가 처가 선산에 거처를 잡은 것을 보아도 그렇다.

오죽현도 烏竹軒圖. 그림 오른쪽 건물이 어제각인데 정화 사업때 헐렸다가 북쪽위치에 복원되었다. 현재는 문성사가 위치해 있다. ©김경수





본가를 떠나 처가살이를 하는 남성들에게 어려움이 없지 않았다. 성주에 살던 율곡은 이웃인 이문건과 가깝게 지냈는데, 그는 승지를 지내다 연좌에 걸려 유배 온 사족이었다. 이문건은 죽은 아들을 대신하여 손녀 숙희의 혼인을 주관하고 풍습대로 손녀 부부를 데리고 산다. 그런데 낯선 시골로 장가온 정섭은 서울 집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날이 많았다. 신랑의 동태를 보고받은 처조부 이문건은 “나이가 어리고 세상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어느 날의 일기에는 “정섭이 서울로 돌아간다고 억지를 부려 알아듣게 설명했다”고 썼다. 이문건은 손녀사위 정섭이 글의 문리를 틔우고 왔다며 흐뭇해하며 『논어』도 읽히고 『시경』도 읽힌다. 시간이 흘러 처가 생활에 적응한 정섭은 처조부를 도와 제사도 지내고 처가 선조들의 묘제에 대신 다녀오기도 한다. 딸을 낳고 사는 동안 정섭은 종종 서울 본가에 다녀오기도 하는데, 그의 아버지가 경산 현감으로 내려오자 가족을 데리고 더 자주 경산을 왕래한다. 정섭의 친가 방문은 시집살이하던 며느리가 친정을 다니러가는 것과 비슷한 행태였다.

## 본향 파주에 묻히다


6살 때 어머니의 손을 잡고 서울로 올라온 율곡은 본향<sup>本郷</sup>인 덕수 이씨의 근거지 파주를 방문한다. 8살의 율곡은 5대조 이명신이 축성한 파주 화석정에 올라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시를 읊는데, 때는 가을이었다.

숲 정자에 가을이 저무니 시인의 마음 끝이 없어라. 먼 강물은 푸른 하늘에 닿아있고 서리 맞은 단풍은 햇볕 받아 붉구나. 산은 외로운 달을 토해내고 강은 만리의 바람을 품어주네. 북쪽 기러기 어디로 가는가, 저문 구름 속으로 소리 내며 사라지네.



은병정사. 1578년 이이가 해주 석담에 세운 학교. 문인들이 재목을 모아 지었고, 학생들의 지침서로 「격몽요결」을 사용했다. © 이은정

서울에서 관직 생활을 하는 동안 율곡은 수시로 파주 율곡을 방문하여 얼마간 머물다 해주로, 다시 서울로 떠나가곤 했다. 본향 파주는 그에게 율곡이라는 이름을 준 곳으로, 수시로 들러 조상과 교감하고 부모를 배묘<sup>拜墓</sup>해야 하는 의무의 공간이었다. 해주 석담에서 교학상장<sup>敎學相長</sup>의 삶을 구현하고 있던 그에게 임금은 지속적으로 러브콜을 보낸다. 그 때마다 사직서를 올리는데, 마지막 이조판서에서는 더 이상 거절이 어려웠는지 상경하게 된다. 그로부터 두 달 후 율곡은 서울 대사동 우사<sup>寓舍</sup>에서 49세의 일기로 세상을 뜬다. 그의 유해는 파주 자운산, 부모가 누워 계신 곳으로부터 열 걸음 남짓한 곳에 묻힌다.

율곡이 머문 곳을 따진다면 성장기를 보내고 관직 생활을 한 서울의 시간이 압도적으로 길다. 하지만 태어나 유년기를 보내며 성품을 형성한 강릉과 지친 심신을 위로하며 학문적 성숙을 가능케 한 해주, 그리고 삶을 마무리하고 영원한 안식에 처한 파주, 이 세 곳은 율곡의 삶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의미의 공간이었다. 

# 인간 울곡 을 만나다

삶은 멀리서 보면 풍경이고 가까이서 보면  
전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에 이름을 남긴 위인이든  
장삼이사張三李四로 살다간 민초들이든  
모든 사람의 인생은 저마다의 희노애락을  
지닌 드라마라는 뜻일 것입니다.

'저레의 스승', '조선의 대유학자'라는  
원경遠景에 가려진 울곡 선생의 삶을  
근경近景으로 만나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자신의 시대를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냈던  
'인간 울곡'의 체취를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자리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 제1회 울곡인문포럼

### 특별전

1차\_2019. **10. 25**금~**10. 31**목  
강릉 명주예술마당 별관 전시실  
개막식: **10. 25. 14:00**  
2차\_2019. **11. 02**토~**12. 01**일  
오죽헌/시립박물관 기획전시실

### 토크콘서트

2019. **10. 25**금 15:00~17:00  
강릉 명주예술마당 공연장 306호  
진행: 오한숙희(여성학자·방송인)  
패널: 곽 신 환(송실대)  
박 도 식(강릉원주대)  
이 정 철(경북대)  
정 향 교(백교효문화선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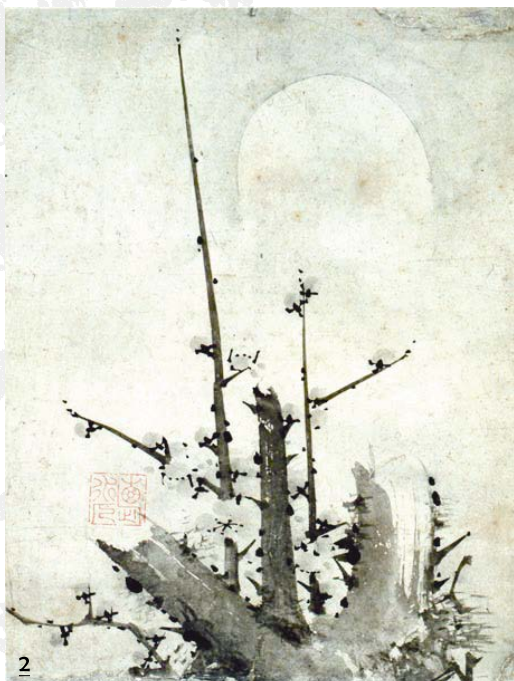


## 이매창, ‘작은 신사임당’으로 불리다

정해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국사



1\_ 이매창과 조대남 묘소 © 정해은  
2\_ 매창 매화도 © 문화재청



신사임당과 이원수는 슬하에 자녀 7명을 두었다. 딸 셋에 아들 넷이었다. 그 중 둘째가 ‘작은 신사임당’으로 불린 이매창李梅窓(1529~1592)이다. 사임당이 26세에 낳은 장녀로 첫째 이선과 5년 터울이다. 『매창집』으로 유명한 전라도 부안의 기생 이매창李梅窓(1573~1610)과는 다른 사람이다.

### 울곡이 국가 중대사를 의논하다

이매창은 글을 익혀서 경전과 역사책 등을 두루 읽었으며, 이 덕분에 사리에 밝고 사회적인 문제에도 높은 혜안을 지녔다. 그래서 이이가 크고 작은 일이 생길 때면 찾아가 믿고 조언을 구하곤 했다. 이와 관련하여 송강 정철의 아들 정홍명이 남긴 일화가 있다.

1583년 북방 변란 때에 울곡이 병조 판서로 있으면서 군량 부족을 걱정했다. 그러자 그 누이가 “오늘날 급선무는 반드시 인심을 생각해서 시행해야 성취할 수 있다. 재주 있는 서열들이 버려지고 가로 막힌 지 이미 1백년이 넘어 모두 울분을 품고 있다. 지금 그들에게 곡식을 납부하는 대로 벼슬길을 띄어주면, 군량을 금방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니 울곡이 탄복하며 즉시 임금께 요청하여 시행했다.(『울곡전서』)

1583년(선조 16)에 이이가 이매창에게 중대사를 의논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 이 해 1월에 여진족 니탕개 등이 대규모 군사를 이끌고 조선을 침략해 왔기 때문이다. 한국사에서는 ‘니탕개의 난’으로 잘 알려진 사건으로 7개월여나 지속된 큰 침략이었다.

조선 전기에 여진은 조선에게는 한마디로 골칫거리였다. 여진은 생활필수품을 확보하기 위해 조선의 변경을 자주 침입해서 사람과 물자를 약탈해갔다. 조선에서는 여진을 잠재우기 위해 토벌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동화 정책과 내부 분열책을 동시에 구사해 세력을 약화시켜 나갔다.

이와 함께 변경 지대를 방어하기 위해 평안도와 함경도에 일정 규모의 군대를 주둔시켰는데, 이들을 ‘유방군’이라 했다. 유방군은 해당 지역민과 남쪽지방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번을 섰다. 하지만 번차례가 되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고달파서 도망자들이 속출하곤 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진족이 대규모로 침략해 왔던 것이다. 당시 이이는 국방을 책임진 병조 판서로서 여진족을 물리쳐야 했다. 이이는 누이 이매창의 의견을 참조해 부족한 병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그것은 지금껏 병력으로 활용하지 않은 서얼이나 남자종들을 군사자원으로 활용하고, 그 대가로 서얼에게는 벼슬길을 띄워주고 남자종들은 천인에서 벗어나게 해주자는 제안이었다. 국왕 선조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 즉시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게 했다. 이매창의 조언이 큰 역할을 했던 것이다.

### “이 어머니에 이 딸이 있도다”

이매창은 어머니처럼 예술적 재능이 뛰어나 그림을 잘 그리는 시도 잘 지었다. 이매창의 남동생 이우의 8대손 이서(1752~1809)는 <집안에 전해오는 서화첩에 발문을 쓰다>라는 글에서 이매창의 그림 솜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일찍이 어머니의 교훈을 받들어 여자의 규범을 따르고 또 그 재주와 학식이 보통사람 보다 뛰어나 깊은 지혜와 원리를 가졌다. .....요즘 우연히 선조의 옛 문적들을 뒤적거리다가 수백 년 뒤에 문득 그 필적을 보니, 시의 운치는 맑고 깨끗하며 그림 솜씨는 정교하여 그야말로 이 어머니에 이 딸이 있도다.


실제로 오늘날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에 이매창의 작품으로 알려진 <매화도>가 있다. 이 작품은 가로 26.5cm, 세로 30cm의 종이에 그린 묵화다. 현재 ‘매창 매화도 및 옥산 국화도첩’이라는 이름으로 이우의 작품과 함께 강원도 유형

문화재 제12호로 지정되었다. 이 그림 외에도 개인이 소장한 그녀의 작품들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매창은 신사임당이 살아있을 적에 본인보다 한 살 적은 조대남趙大男(1530~1586)과 혼인했다. 조대남의 본관은 한양이며 자는 희언이다. 아버지는 사옹원 참봉을 지낸 조건이며, 어머니 한산 이씨는 오늘날 『토정비결』의 저자로 알려져 있는 토정 이지함(1517~1578)의 누이였다. 따라서 조대남에게는 이지함이 외삼촌이 된다.

조대남은 큰 벼슬을 지내지는 못했다. 사숙서 별제(정6품), 황해도 해주의 청단도 찰방(종6품)이 되었다가 종부시 직장(종7품) 등을 지냈다. 조대남이 마지막으로 벼슬을 지낸 종부시는 왕실 족보를 편찬하고, 국왕 친족들의 잘못을 조사하는 일을 담당하는 부서였다. 이매창 부부는 해로하지 못했는데, 이매창이 58세가 되던 해에 조대남이 큰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 부부는 슬하에 3남 3녀를 두었는데, 효성이 깊고 예술적 재능을 보여주었다. 장남 조인의 경우 1592년(선조 25) 4월에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어머니 이매창과 강원도 원주의 영원성으로 피난을 갔다. 성이 함락되자 조인은 어머니를 업고 다시 피하다가 안타깝게도 두 사람 모두 왜적의 칼을 맞고 말았다. 나중에 이 일이 알려져 조인에게 효자 정려가 내려졌다.

이매창의 둘째아들 조영은 시를 잘 짓고 글씨를 잘 써서 필치가 오묘했으며 산수화에 뛰어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임당의 예술적 자질이 그 딸을 거쳐 외손까지 미쳤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조영은 35세에 요절하고 말았다. 그의 부인 창녕 성씨는 정철의 문인 성로의 딸이었다. 그녀는 남편이 병을 앓자 날마다 정성껏 약을 마련했으며, 남편이 죽자 삼년상을 치르고 6년 동안 상복을 입어 정려를 받았다. 이처럼 한 집안에서 정려가 둘이나 나오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니었다. 참고로 오늘날 이매창과 조대남의 묘소는 경기도 파주의 울곡 가족 묘역 안에 자리하고 있다. 



## 숙조령 宿鳥嶺

登登涉險政斜暉

험한 상길 오르노라니 어느새 햇살 비껴 때

小店依山汲路微

작은 즉막 기댄 산으로 물 길은 길 희미해라.

谷鳥避風尋樾去

골짜기 새는 바람 피헤 나무 그늘 찾아 가고

邨童踏雪拾樵歸

마을 아이 눈 밟으며 나무 즉위 돌아온다.

羸驂伏櫪啖枯草

여윈 말은 마구간에 엮드려 마른 풀 먹고

倦僕燃松熨冷衣

게으른 종은 즐거지 태워 차가운 옷 덥힌다.

夜久不眠羣籟靜

밤 길어도 잠 오지 않고 철지는 고요한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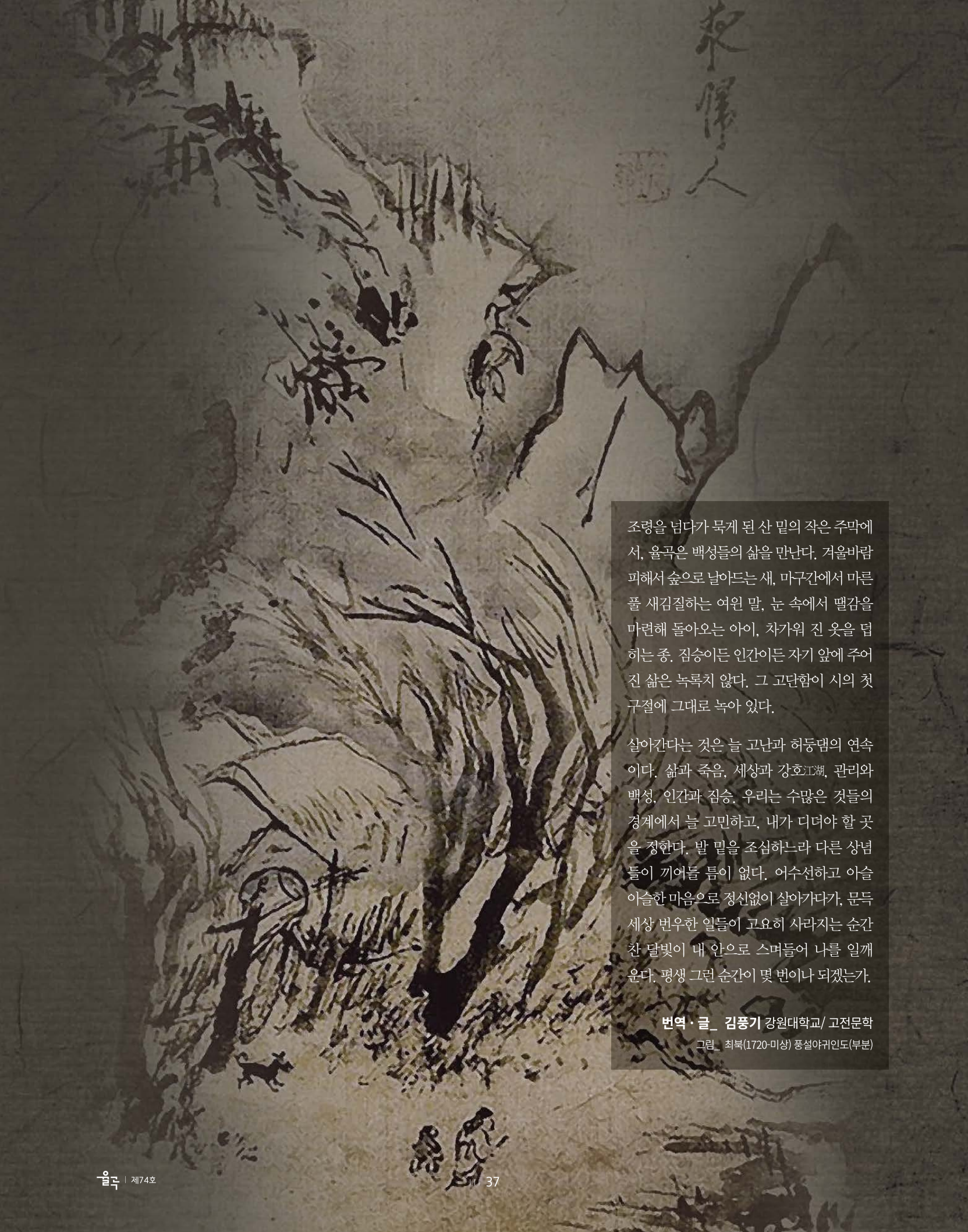
漸看霜月透柴扉

사립문으로 스며드는 찬 달빛만 점점 보인다.

- 조령에서 묵으며(宿鳥嶺), 『율곡전서栗谷全書』 권1

\* 思無邪 : 공자가 『시경詩經』의 시 300여 편을 한 마디로 평한 말로, '생각에 아무런 싹됨이 없다'는 뜻이다.  
『논어』 「위정」 편에 나온다.





조령을 넘다가 묵게 된 산 밑의 작은 주막에서, 율곡은 백성들의 삶을 만난다. 겨울바람 피해서 숲으로 날아드는 새, 마구간에서 마른 풀 새김질하는 여원 말, 눈 속에서 땀감을 마련해 돌아오는 아이, 차가워진 옷을 덥히는 중, 짐승이든 인간이든 자기 앞에 주어진 삶은 녹록치 않다. 그 고단함이 시의 첫 구절에 그대로 녹아 있다.

살아간다는 것은 늘 고난과 허둥댐의 연속이다. 삶과 죽음, 세상과 강호江湖, 관리와 백성, 인간과 짐승, 우리는 수많은 것들의 경계에서 늘 고민하고, 내가 디더야 할 곳을 정한다. 발 밑을 조심하느라 다른 상념들이 끼어들 틈이 없다. 어수선하고 아슬아슬한 마음으로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문득 세상 번우한 일들이 고요히 사라지는 순간 찬 달빛이 내 안으로 스며들어 나를 일깨운다. 평생 그런 순간이 몇 번이나 되겠는가.

번역·글 김풍기 강원대학교/ 고전문학  
그림 최복(1720-미상) 풍설야귀인도(부분)



# 공자, '사람다움'의 조건을 생각하다

박원재 율곡연구원장/ 동양철학

기원전 497년 경, 고국 노魯나라의 기득권층을 상대로 벌였던 몇 번의 권력투쟁에서 패배한 공자孔子(기원전 551~479)는 기원전 496년 50대 중반의 나이에 제자들을 이끌고 고국을 떠났다.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시켜 줄 제후를 찾아 보려는 희망에서였다. 그러나 이 여정에서 공자를 맞이한 것은 제후들의 따뜻한 영접이 아니라 환대를 가장한 무관심이거나 고의적인 냉대였다. 뿐만 아니라 광둥이라는 지방을 지날 때는 한때 그곳 사람들을 괴롭혔던 노나라의 실력자로 오해 받아 닷새 동안 억류되기도 하였고, 진陳나라와 채蔡나라 사이에서는 공자를 시기한 귀족들의 견제로 양식이 떨어져 일행이 굶주리는 등, 예기치 않은 곤욕도 다반사로 치렀다. 『사기』를 쓴 사마천은 이때의 공자의 행색을 두고 '상가지구喪家之狗'와 같았다고 기록하였는데, 지금도 쓰이는 '상갓집 개와 같은 꼬락서니'라는 말의 출전이다.

자신이 꿈꾸는 정치를 실현해보려는 포부를 안고 시작된 공자 말년의 정치적 유랑은 이처럼 좌절과 회한만 남기고 막을 내렸다. 이에 실망한 공자는 13여 년에 걸친 유랑생활을 정리하고 기원전 484년 고국 노나라로 다시 돌아온다. 더 늦기 전에 자신이 계승을 자임했던 전통문화를 정리하고, 이를 고향의 젊은이들에게 전승하기 위해서였다. 그의 나이 68세, 죽기 5년 전 쯤의 일이다.

仁  
／  
義  
／  
禮  
／  
智



1

대략 이 무렵, 적어도 정치판에서의 거듭된 실패를 확인한 인생의 후반기 어느 날, 자신의 비전이 뒷날 이천 년 동아시아 역사를 지배하는 이념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공자는 이런 탄식을 내뿜는다. “심하도다, 나의 쇠약함이여! 이제는 꿈에서조차 주공周公을 뵈지 오래구나!”(『논어』「술이」5)

평생을 꿈꾸던 자신의 이상이 결국은 말 그대로 이상에 그치고 말았다는 현실을 이미 받아들였음직한 이 노 사상가의 입에서 흘러나온 ‘주공’이란 인물은 누구이고, 그는 또 공자의 인생과 무슨 관계에 있었을까? 이는 공자라는 인물의 삶과 생각에서 발원하여 이후 동아시아를 적셔 온 유학이라는 거대한 강이 도달하고자 한 세계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주공은 ‘종법宗法’과 ‘봉건封建’이라는 중국 주

1\_ 중국 당나라 때 화가 오도자吳道子가 그림 최초의 공자 표준 영정

“ 유복하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공자는 자라면서  
독학으로 예禮를 배우고, 또 그것을 숙성시켜 온  
자신들 공동체의 문화적 전통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다.  
그가 삶을 정리하는 시간에도 주공을 그리워한 이유이다.

”

周나라의 통치체제의 양대 기둥을 세운 인물이기 때문이  
다(『율곡』 74호, 「제자백가 이야기(1)」 참조).

### ‘예禮’라는 출발점

『사기』는 공자의 출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한다. 노나  
라의 창평향昌平鄉 추읍縣(지금의 중국 산둥성 곡부曲阜)  
태생이다. 춘추시대 송나라의 후예 집안 출신으로, 아  
버지는 숙량흥叔梁紇이고 어머니는 안징재顔徵在이다. 숙량  
흥과 안징재는 나이 차이가 많았고, 정식혼 관계에 있지  
도 않았다. 이 때문에 사마천은 숙량흥이 안징재와 ‘야합  
野合’ 하여 공자를 낳았다고 쓰고 있다. 정식적인 혼인관계  
에 의한 자식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름은 ‘구묘’인데, 태  
어났을 때 머리 가운데가 움푹 꺼져 있는 것이 언덕 모양  
이라 하여 이 글자를 썼다.

이렇듯 결코 유복하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공자  
는 자라면서 독학으로 예禮를 배우고, 또 그것을 숙성시켜  
온 자신들 공동체의 문화적 전통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  
다. 그가 삶을 정리하는 시간에도 주공을 그리워한 이유  
이다. 자신이 계승하고자 한 문화적 전통은 곧 주공이 틀  
을 만든 주나라의 예, 즉 ‘주례周禮’에 뿌리를 둔 것이기  
때문이다. 공자의 평생을 지배한 꿈은 이처럼 주나라 초  
기 주공에 의해 구현된 주례를 자신의 시대에 다시 부흥  
시키는 것이었다. 그가 볼 때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시대  
가 직면했던 중화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예의 본질은 ‘나눔[分]’이다. 그것은 내가 어떤 사회적  
관계에 있을 때 그 관계망 속에 있는 다른 사람과 나 사이  
의 지위나 역할 상의 차이를 확인하는 몸의 표현이다. 우  
리가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을 만났을 때 상대에게 취하는  
제스처가 각각 다른 것이 좋은 사례이다. 우리는 그런 제  
스처를 통하여 상대와 자신이 사회적으로 어떤 관계를 있  
는지를 드러내 보인다. 따라서 예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  
해서는 사회적 지위나 역할의 구분이 명확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사회적 구분들은 그 사회가 사용하는 언어  
들 속에 ‘이름[名: 개념 또는 직분]’의 형태로 존재한다.  
이를테면, ‘군주’와 ‘신하’,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  
름들이 그러하다. ‘군주’라는 말의 뜻은 ‘다스리는 자’이  
고, ‘신하’는 ‘군주를 보좌하는 자’이다. 이것이 이 단어  
에 대한 사회적 합의이다. 그런데 만약 누가 이러한 합의  
를 깨고 ‘신하’를 ‘다스리는 자’의 뜻으로 사용하거나 또  
그렇게 행동한다면 사회를 지탱하는 관계망의 질서는 혼  
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공자는 이점을 누구보다 깊이 인  
식했다.

“군주는 군주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  
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君君  
臣臣父父子子: 『논어』 「안연」 12]”는 공자의 저 유명한 말은  
이와 같은 고민이 담긴 것이다. 흔히 공자의 중심사상 가  
운데 하나로 꼽는 정명론正名論, 그러니까 정치란 모름지  
기 ‘이름’을 바로잡는 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다.



2\_ 공자의 일생을 그린 〈공자성도孔子聖蹟圖〉 가운데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서 양식이 떨어져 고생하는 장면을 그림

## ‘군자’의 탄생

공자의 이런 생각은 기존의 질서를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는 짙은 보수적 색채를 띠다고 비판받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은 이 발언의 한쪽 면만 보고 하는 말이다. 가령, “군주는 군주다워야 한다”는 말에서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뒤에 있는 ‘군주다움’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이것은 다시 앞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군주’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 있다. 군주를 덕치를 베푸는 존재로 정의하면 군주다움은 곧 덕치를 베푸는 것이고, 군주를 국가의 물리적 질서를 유지시키는 존재로 정의하면 군주다움은 덕치보다 공권력의 적절한 운용 능력과 연결된다. 요컨대, 공자의 이 말은 주어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보수적인 주장도 되고 진보적인 주장도 되는 것이다. 한 사회가 보수적이나 진보적이나 하는 판단은 이처럼 그 사회를 지탱하는 중심적인 언어들을 정의定義하는 권한을 누가 갖느냐와 직결된다.

그러면 공자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했을까? 그는 한편으로 사회적 지위나 역할의 구분을 근간으로 하는 예에 기반한 사회질서를 옹호하되, 다른 한편으로 그 지위나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사

람의 조건을 새롭게 제시하는 방법을 취했다. 이를 위해 공자는 기존 통용되던 ‘군자君子’라는 말의 의미를 새롭게 규정하였다. 그때까지 ‘군자’는 글자 그대로 ‘군주, 즉 통치계층의 아들’이라는 뜻이었다. 아버지가 통치계층이면 아들도 자연스럽게 통치계층이 되는 신분적 상속을 전제로 한 명칭이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 공자는 이 말을 신분적 의미가 아니라 도덕적 의미로 새로이 정의하였다. ‘군자’는 아버지가 통치계층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호칭이 아니라 통치자로서 마땅히 지녀야 하는 모종의 도덕적 자질을 갖추어야 불릴 수 있는 호칭으로 바꾼 것이다. 그렇다면 군자를 군자답게 하는 그 ‘모종의 도덕적 자질’이란 무엇일까? 바로 공자사상의 핵심개념으로 일컬어지는 ‘인仁’이 그것이다.

## 사람다움의 조건 - ‘인仁’

공자사상에서 인과 예는 이중적인 관계에 있다. 일단 인은 사회적 규범인 예의 정당성을 승인하고 지지하는 정서적 바탕이다. ‘인’이 정서적 바탕인 까닭은 유학에서 그것은 어버이에 대한 친애의 감정에 뿌리를 둔 덕목이기 때문이다. 유학

2




“공자는 자기 시대에 대하여 비록 외형적으로 예가 시행은 되고 있었지만 그것을 관통하고 있는 근본정신은 실종된 지 오래라고 보았다.”

에서는 인의 이런 성격을 주목하여 전통적으로 ‘친친(親親)’, 즉 ‘아버이[親]를 아버지로서 대하는[親] 태도’ 라고 그 의미를 정의한다. 공자가 내린 인에 대한 정의 가운데 ‘사람을 사랑하는 것[愛人: 『논어』 「안연」22]’이라는 풀이가 있는데, 이는 ‘아버이’로 상징되는 혈연에 대한 그런 친애의 감정을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한 것이다. 이점에서 인은 공자 사상에서 관계적 존재인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다시 말해서 ‘사람다움’의 본질을 이룬다.

공자는 사람의 사회적 관계를 규율짓는 예가 생명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이런 친애의 감정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공자는 자기 시대 사람들에게 “예다! 예다! 하는 것이 옥과 비단만을 가리키겠는가? 음악이다! 음악이다! 하는 것이 종과 북만을 가리키는 것이겠는가?(『논어』 「양화」9)”라고 반문한다. 요즘으로 치면, “예를 표한다는 말이 박카스 한 통 들고 가는 것만을 가리키겠는가?”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우리는 누구를 방문할 때 예를 차리는 의미에서 종종 음료수를 사서 들고 간다. 그런데 그 음료수 한 통이 우리가 표하고자 하는 예의 전부를 대신할 수 있을까? 당연히 아니다. 음료수는 다만 예를 전달하는 매개물일 뿐, 본질은 그것을 빌어 전달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곧 정신이다.

공자는 자기 시대에 대하여 비록 외형적으로 예가 시행되고 있었지만 그것을 관통하고 있는 근본정신은 실종된 지 오래라고 보았다. 여기서 말하는 예의 근본정신이란 ‘사람’을 대하는 모종의 태도로서, 곧 ‘인’이다. 규범의 붕괴로 야기된 자기 시대의 혼란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 ‘사람다움’에 대한 문제의식을 예의 실천과정에 불어넣어야 한다고 공자는 생각하였다. 이점을 강조하여 공자는 “사람이면서 인하지 않으면 예는 무엇에 쓰며, 사람이면서 인하지 않으면 음악은 무엇에 쓰겠는가[人而不仁, 如禮何? 人而不仁, 如樂何: (『논어』 「팔일」3)]”라고 말한다. 인은 곧 예의 실천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요소라고 본 것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 보면 인은 그 예의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서만 숙성될 수 있다. “자신을 극복하고 예를 돌아가는 것이 인[克己復禮曰仁]”임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행동하지 말라[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 『논어』 「안연」1]”는 공자의 말이 이 관계를 잘 보여준다. 인은 관계를 통해 영위되는 인간의 삶의 본질에 본질에 대한 자각을 통해 얻어지는 덕목이다. 그러므로 인의 성취는 궁극적으로 주체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즉 ‘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자각의 계기는 예라는 외면적 규범을 성실히 실천하는 행위를 통하여 주어진다. 『논어』에서 ‘배움’[學]이 강조되는 까닭 역시 여기에 있다. 인의 획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인 예의 실천은 어디까지나 학습을 통해 달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자 철학에서 예의 올바른 실천은 인을 획득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며, 또 그 예를 통해 자신의 인을 드러내는 것은 예에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셈이다.

공자 철학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이처럼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전통’이라는 형식으로 주어지는 삶에 대한 외면적 규정들을 내면의 도덕적 정서와 일치시키는 것이다. 이것을 만약 ‘도(道)’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면, 공자가 추구하는 도는 삶의 이 두 부분, 즉 관습적이고 외면적인 영역과 주체적이고 내면적인 영역이 완벽하게 합일된 상태를 가리킨다. 앞에서 말한 ‘군자’는 바로 삶의 이 두 부분을 자기 안에서 성공적으로 융합해낸 인격이다. 여기까지 오면, “항상 자신이 행하는 예의 의미를 자각하는 예 전문가[君子(儒)]가 되어야지, 그런 의식없이 관습적으로만 예를 행하는 예 전문가[小人(儒)]가 되어서는 안 된다”(『논어』 「용야」13)고 한 공자의 당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명해진다. 그는 ‘사람다움’의 조건, 즉 사람은 어디까지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하나의 ‘인간(人間)’이 되어간다는 생각을 시종일관 견지했던 사상가인 것이다. 



# 원님재판(?), 정조의 심리審理와 정의론

— 김 호 경인교대/ 한국사



1\_ 구군복 차림의 정조 어진  
© 이길범화백

2\_ 강릉대도호부 관아의 객사

## 오래된 편견

‘원님재판’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테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사극이나 영화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장면이 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는 호통소리와 함께 등장하는 원님이다. 현대의 법치와는 거리가 먼 조선시대의 원님 재판은 잘 될 경우 솔로몬의 지혜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대개는 기분 내키는 대로 판결이라는 불명예를 피하기 어려웠다.

1970년대 이후 한국의 법학자는 물론 역사 전문가들은 조선의 법치가 근본적으로 서구의 그것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법전을 갖추고 제도와 절차에 따라 집행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원님 마음대로 처결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 그럼에도 조선의 재판은 판관 마음이라는 편견은 아직도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 글에서 필자는 조선의 재판이 법절차에 충실하거나 서구와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넘어, 조선의 고유한 통합적 법해석에 근거하여 정의롭게 처리되었음을 역설하고자 한다.

조선의 살인 사건, 이른바 형사 재판은 정교한 절차를 거쳐 처결되었다. 심리과정에서 이른바 정情과 리理와 법法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했다. 정이 사건의 진실이라면, 리는 사건을 둘러싼 윤리적 측면 등 사회적 가치관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법은 대명률이나 경국대전 등의 율문律文이다. 이처럼 조선의 형사재판은 정과 리와 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판결을 내렸는데, 특히 정조는 심리 과정에서 정리법을 매우 정교하게 고려했다.

정조는 왕위에 오르자 곧바로 형정 제도를 정비했다. 가장 먼저 행한 조치는 사건 조사나 형 집행 과정에서 벌어지는 남형濫刑을 줄이고자, 곤장을 비롯하여 각종 형구의 재질과 사이즈를 완화 및 축소했다. 형정의 핵심은 공정함이었다. 모든 백성들에게 사법 집행이 정의롭다는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했다.

형구의 조정과 제도의 완비도 필요하지만 이를 운영하는 사람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훌륭한 제도가 필요조건이라면 심리의 공정함은 충분조건이었다. 때문에 정조는 자신의 치세에 일어

난 살인사건 천여 건을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명했을 뿐 아니라 본인 스스로 재판 과정 전체를 꼼꼼하게 체크했다. 그의 『심리록審理錄』에는 정의로운 행정 운영을 향한 정조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 정情, 리理, 법法

정조는 이른바 ‘情·理·法の 삼박자’라는 조선 행정의 심리 원칙을 충실하게 따랐다. 당연한 일이지만 조선시대에도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우선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고자 했다. 사건의 진실과 내막을 알지 못하면 이후 어떤 판결도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없었다. 철저한 사건조사는 정의로운 행정의 기초였다.

살육의 수사는 사건 발생 지역의 사또가 담당했다. 이들 사또는 관할 지역의 행정, 사법은 물론 군사와 교육 등 모든 부분을 책임졌다. 작은 왕이라 불릴만했다. 지방 사또에게는 살인사건의 진실을 파헤칠 의무와 책임이 있었다. 옥정獄情, 곧 살인사건의 정황이자 내막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무렇게나 조사할 수 없었다.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했으며 당대 최고의 수사 기법을 활용해야 했다. 『무원록無冤錄』은 한마디로 조선시대 지방관을 위한 살인 사건 수사 지침서요, 검시 참고서였다.

조선 건국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세종대에 중국의 『무원록』을 알기 쉽게 풀이한 『신주무원록』이 간행되었을 뿐 아니라 이후 영·정조대 계속하여 『증수무원록』, 『증수무원록대전』 등의 업그레이드와 번역(언해) 작업이 지속된 이유가 여기 있었다. 애초에 사건 수사가 정확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비로소 이후의 심리 및 판결에서 정의 구현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정조는 지



2

정조는 왕위에 오르자 곧바로 행정 제도를 정비했다.  
남형濫刑을 줄이고 자곤장을 비롯하여  
각종 형구의 재질과 사이즈를 완화 및 축소했다.



방관들에게 『무원록』을 철저하게 학습하도록 당부하고 또 당부했다.

지방관의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것도 한번[初檢]에 그치지 않고 인근 사또의 2차 조사[覆檢]까지 이루어지고 나면, 다음 죄인을 어떻게 처벌할지에 대한 판결(심리)이 필요했다. 1차 심리는 도관찰사의 몫이었다. 자신의 관할 하에 일어난 모든 살인사건에 대해 관찰사는 판사가 되어 죄값을 결정해야 했다. ‘살인자상명殺人者償命’, 즉 살인자는 목숨으로 보상한다는 원칙에 따라 사형을 집행할지 아니면 정상情狀을 참작하여 유배형으로 감형할지 판결해야만 했다.

사람을 죽인 사실[獄情]은 명백하지만 부모님을 구하려다가 다른 이를 상해한 경우라면 정상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상情狀을 참작할 때 정은 정리情理의 의미였다. 이른바 사건마다의 ‘고유한 사정’과 당대인들의 ‘가치관[道理]’을 고려한 ‘사실’이었다. 이로부터 사실은 객관적인 팩트를 넘어 참작의 ‘여지’ 속으로 밀려들어갔다. 객관적인 사실에 가치관이 개입되어 정상참작이 이루어지는 순간, 주·객관의 혼용한 상태의 옥정獄情은 단순히 객관적 팩트에 머물지 않았다. 도리어 사회를 지탱하는 도덕감정[理]과



“

조선시대 살육죄인의  
최종 심리는 왕이 결정했다.  
정조는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일이라

검안을 살피고 판결문을  
검토하는데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었다고 술회했다.

”

결합되어 정리情理의 영역이 되었다. 결국 최종적인 법률 조문의 인용에서 정과 리와 법, 혹은 정리와 법의 긴장 관계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판결이 불가피했다.

관찰사는 사또의 검안을 참고하면서 사건의 고유한 사정[情理]을 참작하여 해당 사건에 적합한 법률 조문을 인용해야 했다. 이렇게 내려진 관찰사의 1차 심리(판결) 결과는 중앙의 형조로 보고되었다. 형조에 모인 관리들은 전국의 관찰사들이 보고한 살육 문서를 검토하고 2차 심리에 들어갔다. 형조의 견해가 도관찰사의 심리 의견과 일치할 수도 있었지만 다른 경우도 많았다. 관찰사는 사형을 판결했지만 형조는 유배형으로 결정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반대의 경우도 가능했다.

### 정조의 고민

조선시대 살육죄인의 최종 심리는 왕이 결정했다. 정조는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일이라 검안을 살피고 판결문을 검토하는데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었다고 술회했다. 한쪽에서는 죽여 마땅하다고 했지만 다른 편에서는 정리를 고려하여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혹 관찰사와 형조 공히 사형이야말로 가장 정의로운 판결이라고 강조했지만 정조가 보기에 감형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정조는 하나의 사건을 판결할 때마다 정신력이 한 층씩 꺾여 나가는 듯한 고통이 따랐다고 고백했다.

정조는 “법이란 천하의 공평한 일이다. 법관이 올바르게 판결을 내리면 임금이라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다. 사건에 연루된 죄수들이 모두 자백하고, 검안의 내용과 관찰사의 판결 그

리고 형조의 논의와 대신들의 의견들이 모두 일치한다면 왕이라도 법을 굽힐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 집행은 그해야만했다. 그러나 정의로운 판결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1797년(정조21) 6월 경상도 영해에서 신사랑이라는 자가 신천일의 아내 신씨를 칼로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다. 살인이 명백했다. 신여인의 검시장[檢屍狀]에는 넓적다리의 자상[刺傷]이 깊다고 적혀 있었다.

사정은 이러했다. 신천일의 부인 신씨는 평소 패악질이 심한 남편 신천일을 죽일 작정으로 신사랑의 며느리를 유인하여 자신의 남편과 간통하도록 만들었다. 신사랑의 며느리는 선천적으로 귀머거리인데다 바보였던 자신의 남편을 배신하고 신천일과 간음했다. 얼마 후 신천일의 간음 사실은 발각되고 말았다. 그런데 아들의 원통함을 갚으려던 신사랑은 간통 당사자인 며느리와 신천일 대신 신천일의 부인 신씨에게 칼을 휘둘렀다. 신천일의 부인이 모든 사단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조선의 법률은 남편에게 아내의 간통남을 죽일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었다. 그런데 신사랑의 아들은 어리석은 바보여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대신 나서 사람을 죽인 상황이 발생했다. 당시 경상도관찰사를 포함하여 형조관리들 모두 살인자 신사랑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조는 최종 판결을 내리기에 앞서 대신들의 의견을 구했다. 우의정 이병모는 ‘효자가 부모를 위해 복수한 것도 아니고, 지아버가 아내의 간통남을 죽인 것도 아니므로 사죄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형조 참판 심진현은 ‘신천일의

처가 간통을 중매했다고 하지만 그 죄가 법으로는 죽을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신사량이 제멋대로 죽였으니 실정으로는 참작할 만하지만 법을 지키는 형조로서는 다시 논의할 만한 점이 없습니다.’라는 기왕의 견해를 고집했다. 그러나 심환지는 달랐다. ‘정리와 법을 참작하여 경중의 중심을 잡는 것은 오직 만물을 조화하는 천지와 같은 성상의 헤아림에 달려 있습니다.’ 라면서 정조에게 최종 판결의 미루었다.

## 공동체의 유지

정조는 오랜 고민 끝에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한마디로 신씨 부인의 교활함을 응징하고 신사량의 아들을 위한 복수의 마음을 고려한 것이었다.

무릇 형벌이란 교화를 돕는 방편이니, 교화가 제대로 서지 못하면 형법이 옳게 시행되지 않는 법이다. 조선은 풍속과 교화를 돈독히 하고 숭상하였기 때문에 여염의 허참은 필부필부도 한번 짝을 맺은 다음에는 종신토록 바꾸지 않았다. 간혹 어리석은 백성이나 음탕한 여자들은 몰락시켜 공천公賤으로 만들었다. 그의 부모, 시아버지, 남편이 된 사람은 윤리와 기강을 무너뜨리고 가문을 더럽힌 것을 보고는 사사로운 마음에 분하고 부끄럽게 여겨 맹세코 그 수치를 깨끗이 씻어 버리고자 하여 종종 간통하는 현장을 잡거나 관가에서 판결을 내리기도 전에 분수를 뛰어넘어 원수를 그 자리에서 제멋대로 때려죽이기도 하였다. 이럴 경우 법으로는 용서하기 어렵지만 정리로는 범죄의 동기를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중략) 대저 신사량의 며느리를 신천일이 확실히 간음하였고 신천일의 간음은 신 여인이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하였으니, 신사량의 자식을 위하는 마음으로 어찌 신천일에 대하여 분을 풀고자 하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신천일이 간통을 저지른 근본을 미루어 보면 또한 어찌 소개한 신여인이 아니겠는가. 신사량이 신 여인을 칼로 찔러 죽인 것은 바로 신천일을 찔른 것이 되니, 죽은 자가 간부奸夫인지 간부가 아닌지는 중요하게 따질 일이 못 된다. 시집가지 않은 여자가 남에게 강간을 당했을 경우

그 부모가 강간한 자를 때려죽인 죄에 대한 형률은 장차 백에 처하는 것이다. 신사량의 아들은 귀머거리에다 바보이니 그의 아내 김 여인은 결혼하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었다. 그러나 시부모는 바로 또한 부모이다. 자식을 대신해서 간통한 자를 잡은 것은 인정상 당연하고, 장백으로 감형하는 것은 법례法例를 원용할 만하니,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를 구별하는 것도 부당하다.



조선시대 형틀 © 한국민속촌

정조는 신하들로부터 법을 구부린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형조 관리들의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신사량 한 사람을 살려 주는 일은 여러 신사량으로 하여금 법을 농락하게 하는 일입니다 [活一思良 使幾思良玩法]’ 형조로서는 마땅한 주장이었다. 이에 정조는 ‘신여인의 목숨 값을 갚아 준다면 여러 명의 신 여인으로 하여금 풍속을 무너뜨리도록 하는 것이다 [償一申女 使幾申女敗俗]’라며 반박했다. 신씨를 죽인 신사량을 사형에 처한다면 풍속을 무너뜨린 신씨와 같은 이들을 용납한다는 의미인데 죽어 마땅한 자들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 정조의 논리였다. 결국 정조는 ‘법을 농락한 죄는 작지만 풍속을 무너뜨린 폐단은 크다 [玩法之罪小 敗俗之弊大]’고 결론지었다. 오랜 논란과 숙고 끝에 정조는 법을 구부린다는 비판에 맞서 도덕 교화를 참작한 결단을 내린 것이다.

정조의 최종 결론만 보고 원님재판이라고 비난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정조의 살육 심리는 지난한 숙고의 과정이었다. 결단코 법의 절차와 제도를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었던 것이다. 오히려 법과 제도적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신념 하에서, 정조는 당대 조선 사회를 유지하던 성리학의 이념과 가르침을 깊이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른바 정조의 심리는 사건의 진실[情]과 진실을 둘러싼 정황 및 인간다움의 원리들[理], 그리고 입법 취지[法]를 통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만, 조선이라는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다는 통찰의 산물이었다. 





집과 사람은 하나이다. 사람을 보면 그가 사는 집이 보이고, 집을 보면 그 안에 사는 이의 모습이 느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사람에게 인격人格이 있듯이 집에도 가계家格이 있다고 여겨, 집을 하나의 주체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집은 인간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집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인 부의 과시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집은 그곳에 살고 있는 인간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



선교장 활래정 ◎차장십

선교장 정원에 판 인공 연못 위에 세운 정자. 순조16년(1816) 열화당을 세운 다음해에 세웠다. 정자명은 주자의 시(관서유감) 중 "爲有頭源活水來"에서 땀다고 한다.

# 인간중심의 열려있는 한옥

차장십 | 강령대학교 / 한옥사

## 인간중심의 건축

집은 인간을 위한 공간이다. 사람이 집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집을 향유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집은 언제나 사용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편안함과 안락함을 주는 공간이어야 한다. 따라서 가장 좋은 집은 밖에서 보이는 외관이 아니라 집 안에 살면서 안에서 밖을 보았을 때 좋은 집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옥은 소박하고 단아하다. 사람이 집에 사는 것이다. 집에 사람이 맞추어 살아가는 서양과는 대조적이다.

우리나라의 집은 인간의 착시현상을 교정해 준다. 인간에게는 착시현상이 있다. 우리나라 건축은 인간의 착시현상을 교정해 줌으로서 보다 편안함 마음으로 인간이 집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착시현상 교정은 기둥에 있어서 배흘림 기둥과 안솔림, 귀솟음, 그리고 기둥 간격 등이다.

배흘림(Entasis) 기둥은 기둥의 중앙부가 가늘어 보이는 것을 교정하기 위해 기둥중앙부의 직경을 기둥 상하부의 직경보다 약간 크게 하는 기법이다.



“

집은 인간이  
살기 위한 공간이다.  
한옥은 신체와  
적절하게 어울리는  
크기로 자연스럽고  
친근감을 준다.

”

안솔림은 건물모서리 기둥의 상단이 약간씩  
외측으로 벌어져 보여 건물이 불안정해 보이는  
착시현상이 발생을 교정하여 건물에 안정감을  
주기 위해 양측 모서리 기둥을 약간씩 안쪽으로  
기울이는 기법이다.

귀속음은 건물을 정면에서 볼 때 건물자체를  
배경으로 하는 중앙부의 기둥들에 비해 허공을  
배경으로 하는 양측 모서리의 기둥들이 낮아 보  
이기 때문에 모서리 기둥을 다른 기둥에 비해 약  
간 높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둥간격이다. 건물정면에서 볼 때 기  
둥의 간격이 양측 모서리로 갈수록 넓어 보이는  
착시현상이 발생한다. 이를 교정하기 위해 모서  
리로 갈수록 기둥간격을 좁게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착시교정 기법을 사용한 우리나라 대  
표적인 건축물은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이다. 서  
양의 대표적인 건축물은 그리스 고대 파르테논  
신전이다. 무량수전을 동방의 파르테논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기와집은 지붕은 용마루와  
추녀, 처마를 모두 곡선으로 하였다. 이는 지붕  
의 선을 직선으로 할 경우 지붕의 양쪽이 아래로  
처지는듯하여 지붕이 매우 무겁게 느껴지기 때  
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와집의 지붕은 학이  
날갯짓을 하는 듯 가볍게 느껴지기 때문에 집으  
로 출입하는 사람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드나들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 건축물의 지붕은 주  
로 직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무겁게 느껴져 출입  
하는 사람들에게 부담감을 준다.

우리나라 한옥의 척도는 모두 사용하는 사람  
중심의 인간적인 척도를 사용하였다. 한옥의 건  
축미를 말할 때 단아함과 순박함을 겸하고 있다

고 한다. 단아함은 규모가 작은 건물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이고 순박함은 순후한 우리민족의 성정  
性情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아름다움이다.

중국건축은 장대하나 우리나라 한옥은 사람을  
기본적인 척도로 하여 적당한 크기로 건축하였  
다. 한옥은 지나치게 크지 않고 작지도 않아 적  
당한 크기이기 때문에 사람의 신체와 적절하게  
어울리는 크기로 자연스럽고 친근감을 준다.

집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중  
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 건축처럼 크거나 호화로  
울 경우는 집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  
라 사람이 집을 위해 존재하게 된다.

오르는데 불편함이 없는 기단과 툇마루, 방안  
에서 턱을 났 수 있는 높이의 머름, 창호의 넓이  
와 높이, 기둥의 굵기나 높이, 들보의 크기, 천  
장높이, 지붕의 경사나 돌출깊이, 평면 공간이  
나 체적공간의 양적 크기 등에 있어서 아담하고  
단아하여 인간적인 척도의 정감을 느끼게 한다.

예를 들어 머름의 높이는 인간이 잠을 잘 때  
보이지 않고, 팔을 올려놓았을 때 가장 편안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으면서 기대는 기능을 담당  
하였다. 집은 인간이 살기 위한 공간이다. 현대  
인들이 집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과는 다르다. 철저하게 사용하는 사람을 기준  
으로 지어진다. 한옥은 일정한 규정이나 척도에  
의해 기계적으로 만들어 지거나 권위 등을 과시  
하기 위한 허세를 부리는 건축이 아닌 살고 있는  
사람을 위한 건축이다.

강릉 객사문 ㉠차장설

강릉 임영관 삼문, 국보 제51호이다. <임영지>  
에 의하면 강릉객사는 936년 본부객사로 지정  
되어 임영관의 창건을 비롯해 모두 83칸 정도의  
건물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 열려 있는 공간

한옥은 공간을 무한 확대하는 집이다. 집안 내부에 머물지 않고 산과 물, 지형과 어울리게 짓고 외부 풍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지붕의 높이를 산의 높이에 맞게 조정하듯 담장의 높이도 가능한 낮추어 앞에 펼쳐진 들과 산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였다. 외국처럼 담장을 높게 하지 않은 것은 자연풍광을 집안에서 편하게 감상할 수 있게 배려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담장은 공간을 구분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1.5m를 넘지 않는다.

기단은 지면으로부터 집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기단을 높게 함으로서 방 안에서 밖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단을 높게 하는 것은 지면의 습기를 피할 수 있고 햇볕을 집안에 충분히 받아들여 밝게 생활할 수 있다. 기단은 한국건축에서 가장 잘 발달되어 있으며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높은 편이다.


韓

屋

집은 쾌적해야 한다. 쾌적하다는 것은 온도와 습도가 적당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기단은 중국과 같이 권위를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지면의 습기를 피하기 위함이다. 기단을 높게 만들면 제습뿐만 아니라 통풍도 원활해져서 목재의 부식을 막아 건축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

사람이 사는 집은 밝고 명량해야 한다. 집이 낮으면 어둡고 높으면 밝아진다. 기단을 높이면 입면면적이 많아지므로 그만큼 빛을 받아들이는 양이 많아 집이 밝아진다. 따라서 기단의 높이는 채광량에 관계가 있다. 처마가 깊어 마당에 떨어진 반사광을 간접적으로 받아들이는 한옥의 채광방식에서는 기단의 역할을 매우 크다.

그리고 별도로 누정을 만들기도 하지만 여의치 않은 경우 사랑채에 내루(內樓)를 만들어 외부 풍경을 집안으로 끌어들이었다. 이를 우리는 차경(借景)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한옥은 중국의 폐쇄적인 사합원(四合院)이나 일본의 닫힌 주거에 비해 훨씬 개방적이다. 







## 한류 체험, 깊이를 더하다

편집부

상황에 따라 일시적인 굴곡들은 있지만 외국 젊은이들의 뜨거운 한류 붐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특히 ‘아미(ARMY)’라는 별도의 이름을 지닌 팬클럽을 거느리며 전세계적으로 독보적인 팬덤(fandom)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BTS(방탄소년단)의 인기는 식지 않는 한류붐의 대표적인 마중물이다.

이에 힘입어 한류붐의 수준도 꾸준히 진화하고 있다. 한국문화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그 속살까지 들여다보고 싶어 하는 외국인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이다.

### 유교를 중심으로 한류의 정신적 토양 체험

울곡연구원에서는 이런 추세에 호응하여 외국 대학 및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유교문화 체험연수를 8월 27일(화)부터 30일(금)까지 3박4일 간 진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특히 ‘한국유교문화’에 대한 이해의 장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한류체험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의미가 있다. 의·식·주 중심의 물질문화가 아니라 우리 정신문화에 대한 체험이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연수내용도 유교문화에 대한 강의와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체험이 균형 있게 구성되어 있다. 유교문화의 역사와 특징에 대한






강의와 율곡사상 특강 그리고 한옥 강의와 오죽헌 및 강릉향교 답사가 전자에 해당한다면, 다도 체험과 한국음식 만들기, 한국 생활예절 배우기 등은 후자에 속한다. 뿐만 아니라 강릉 농악 체험과 커피박물관 관람 등 강릉 문화에 대한 소개도 함께 이루어져 짧지만 알찬 한류체험이 진행된다.

### 참가 인원의 1/3이 석·박사일 정도로 참여자들의 수준 높아

이번 연수는 모두 15개국에서 28명이 참가했는데, 모두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한국문화 매니아들이어서 언어소통 문제로 시간을 허비하는 여타 한류체험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다. 직업 또한 대부분 대학 및 대학원생들이며 이 가운데 1/3 정도가 석·박사일 정도로 지적 수준도 높다. 전공 역시 인문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공학 등으로 고르게 섞여 있어 작은 사례이긴 하지만 한류에 관심을 갖는 외국 젊은이들의 층이 다양함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연수 참가자 모집은 대만의 경우 대만정치대학에 의뢰하였고, 나머지 나라들은 해당국에 있는 우리 세종학당을 통해 모집하였다. 이번 연수에서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왕복 항공료는 본인들이 부담하고 율곡연구원에서는 연수진행에 소요되는 비용만 부담한다는 점이다. 이는 한류체험에 대한 참가자들의 열의가 그만큼 적극적임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율곡연구원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한류에 대한 외국 젊은이들의 관심의 폭과 깊이를 한 차원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꾸준히 기여해나갈 예정이다. 







### 7.16 충청권 유교문화 연구기관들과 업무협약 체결

울곡연구원(원장: 박원재)은 7월 16일(화) 충청권 유교문화 연구기관들과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충청유교문화원 착공 축하를 겸하여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울곡연구원을 비롯하여 충남역사문화연구원(원장: 박병희), 청운대 남당학연구소(소장: 민황기), 충남대 한자문화연구소(소장: 이향배) 그리고 서울의 퇴계학연구원(원장: 송재소) 등 5개 기관장이 참여하여 모두 5개조로 구성된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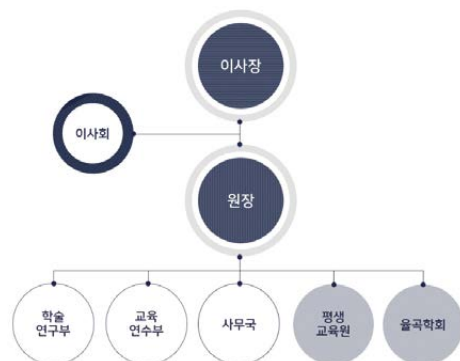
### 8.27 울곡연구원, '화폐도시 강릉' 심포지엄 후원

울곡연구원은 8월 27일(화) 강릉스카이에비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린 '화폐도시 강릉, 관광콘텐츠 전략'을 주제로 한 '오만원권 발행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후원하였다. 강원일보사 주관으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서 발제자로 나선 유영심 강원연구원 박사는 울곡과 사임당의 스토리를 콘텐츠화하는 방안과 그 필요성을 제시했고, 전보삼 전 한국박물관협회 회장은 강릉의 정체성을 담을 수 있는 국립강릉박물관을 건립해 그 안에 별도의 화폐관을 만들자고 주장하였다. 이어 발제와 관련된 토론이 진행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박원재 울곡연구원장은 모자 화폐인물 대중친화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 8.30 울곡연구원 제5차 이사회 개최 및 조직 개편

2019년도 제5차 울곡연구원 이사회(이사장: 윤사순)가 8월 30일(금) 울곡평생교육원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윤사순 이사장 외 총 18명이 참석한 이번 이사회에서는 일반이사 사임 및 직책이사 선임, 직제 및 위임전결규정 제정 건에 대해 의결하였다. 또 하반기 사업 추진 현



황을 보고하였으며, 기타 기관 운영과 관련된 현안들이 토의되었다. 이날 의결된 직제규정에 따라 울곡연구원의 조직도 개편되었는데, 사업부서 중심으로 조직을 단순화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에 따라 기간조직으로 학술연구부, 교육연구부, 사무국을 편제하고, 부설기구로 울곡평생교육원과 울곡학회를 두어 전체적으로 2부 1국 2부설기구로 조직을 정비하였다.



### 9.5 율곡평생교육원 제3기 다도대학원 실기평가

율곡연구원 부설 율곡평생교육원(교육원장: 김경자)은 9월 5일(목) 율곡연구원 예절실에서 사임당인성예절다도대학 제3기 다도대학원 다례사 교육 실기평가를 실시하였다. 실기 평가에는 모두 7명의 재학생이 참가하였는데, 참가자들은 심사위원들 앞에서 그동안 배운 말차다례 시연을 선보였다.



### 9.27 율곡평생교육원 평생대학강좌 문화재답사

율곡연구원 부설 율곡평생교육원에서 진행하는 제20기 평생대학강좌에서는 9월 27일(금) 안동으로 문화재답사를 다녀왔다. 40여명의 수강생이 참여한 이번 답사는 도산서원, 한국국학진흥원, 학봉종택을 경유하는 하루 일정으로 진행되었는데, 일반에는 잘 공개되지 않는 한국국학진흥원의 장판각과 학봉종택의 가묘(사당)를 직접 관람 및 참관하는 기회도 가져 수강생들은 답사의 알찬 구성에 만족을 표했다.



### 율곡평생교육원 하반기 인성·효행 체험 강좌 운영

율곡연구원 부설 율곡평생교육원은 2019 하반기 인성·효행 체험 강좌를 운영한다. 유아 및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도 체험 및 예절교육을 실시하는 이 강좌는 9월부터 11월 말까지 진행된다. 강좌는 대상 연령에 따라 맞춤형으로 인성 함양 및 예절 교육이 진행되는데, 율곡평생교육원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강사들이 담당한다.



역사에 의미를, 전통에 숨결을

# 청소년 영상작품 공모전

율곡연구원은 거례의 스승인 율곡 선생의 사상을  
선양하고 선생이 일구어 놓은 이념을 청소년들에게  
알리기 위해 '2019 청소년 영상작품'을 공모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모 바랍니다.



## ▶ 공모주제

'율곡'과 '오죽헌'을 주제로 한 미디어 콘텐츠

## ▶ 참가자격

강원도 중·고등학교 및 동일 연령대 청소년

## ▶ 공모부분

인터뷰, 드라마, 브이로그, CF 등 자유형식

## ▶ 접수방법

율곡연구원 웹사이트로 신청서류 및 미디어 파일 업로드  
(자세한 사항은 율곡연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 문의 및 상세사항

율곡연구원 교육연수팀 : 033-642-4982  
율곡연구원 홈페이지 : [www.yulgok.or.kr](http://www.yulgok.or.kr)

## ▶ 공모기간

19. 10. 10 (목) ~ 19. 10. 25 (금)

## ▶ 시상

구분		팀 수	상금 (팀별)
최우수		1팀	100만원
우 수		2팀	70만원
장 려		3팀	50만원
특별상	강원도교육감상	4팀	30만원
	강원도민일보사장상		
	강원민방(G1)사장상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상		

## 율곡학 진흥에 뜻을 함께 하실 분을 모십니다

(사)율곡연구원은 겨레의 큰 스승인 율곡(栗谷) 이이(李珥) 선생의 사상을 중심으로 우리 전통문화를 연구하고 그 성과를 보급하는 한국학 진흥기관입니다. 율곡학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지원하고, 선인(先人)들의 삶의 지혜를 ‘오늘’과 접목시키는 연수사업과 평생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있는 사업에 뜻을 함께하실 기부 회원을 모십니다. 보내주시는 ‘마음’은 율곡학과 전통문화 진흥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쓰입니다. 많은 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기부금 납부처

농협 255-01-509946 [예금주 : 율곡연구원]

기부회원 특전

- 기부금 세금 공제
- 본원 발간 도서 무료 배부
- 본원 주관 행사 우선 초청

문의

TEL\_ 033.642.4982

E-mail\_ yulgokee@hanmail.net



### (사)율곡연구원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사단법인 율곡연구원은 2014년 3월 31일자로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4-72호에 따라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 전자관보[2014.3.31.일자] 및 기획재정부 홈페이지[기획재정부-법령-공고]에 게재됨.)





### 오죽헌 내부

오죽헌 대청의 천장 모습. 가운데는 우물천장이고 주위는 서까래를 그대로 노출시킨 연등천장 구조이다.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오죽헌' 현판은 송시열의 제자 수암遂菴 권상하權尙夏(1641~1721)의 글씨이고, 나머지는 기판은 1716년 장암丈巖 정호鄭浩(1748~1736)가 쓴 중수기를 비롯하여 각종 기문記文을 새긴 것들이다.